



Good Morning  
**ASIA**



&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4 **5**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9.19~10.4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18~10.24

2014 **5**





## ‘보안등’ 다시 켜자

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하다.

이 땅의 보안등은 완전히 꺼졌다.

안전지대(安全地帶)가 없다.

다시 보안등의 스위치를 켜야 한다.

— 중구 율목동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06 5월 특집 사찰의 봄  
사찰이 품은 보물
- 12 인천, 장수 만세 100세 넘긴 어르신들
- 16 가정의 달 특집 가족 나들이
- 22 Culture Info 할락궁이의 모험 외
- 24 내 길 내 일 ‘인천의 어제와 오늘’ 블로그 운영 김식만 치과의사
- 26 사회적기업 탐방 ㈜아인
- 27 모닝커피 한잔 인천청소년명예외교관
- 28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 30 포커스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 32 News Brief 인천어린이과학관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외
- 35 의정뉴스 제115회 학생 의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외
- 36 이달의 서평 사라진 그림들의 인터뷰 외
- 38 생활정보 5월 가정의 달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외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4년 5월 2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중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  
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 · 정정호 · 홍승훈 · 유창호(자유  
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  
84900-42-81 편집디자인 · 인쇄 웨스트코(주)

### 이천십사년 오월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45

contents

####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미얀마

#### 49. 에티켓

방문 에티켓

#### 50. Asiad News

키르기스스탄에서 Fun Run~ 외

#### 52. 줌 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완공

#### 56.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일본

#### 58. 하나되는 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춤추는 소녀 외

#### 60. 아시아를 배우다

언어권별 회화



표지이야기

▶ 5월, 탐스러운 햇살 공기마저 깊고 따사롭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슬프고 미  
안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맑은 눈동자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사랑한다 말하고 두 뺨을 비비고 품에 안아 주세요, 아이들이 있어, 세상은  
다시 아침입니다.

▷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40억 아시아  
인들이 하나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아시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 @Bulloger

시민께서 인천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경인아라뱃길에 갔는데 아직 황량하여 아쉬웠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외부에서 가져온 쓰레기는 집에서 버리라고 한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라뱃길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항만공항시설과 아라뱃길 담당자에게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아라뱃길 이용 시 불편한 사항은 아라종합안내센터 1899-3650로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를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차를 피해서 갓길로 전철역까지 돌아갔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 212공구 담당자(451-2848)에게 문의한 결과, 금일 가림막 철거 및 시야확보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 도로 포장 공사를 완료해 불편 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지원이 있나요? 윗집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수면 중에 발생하는 코골이는 소음조절이 가능한 인위적인 소음이 아닌 불가피한 소음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음을 시 환경정책과 담당자(440-3542)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거주자로서 기타 소음에 대한 불편 사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문의하면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가스는 왜 카드결제가 안 되나요? 카드결제를 하려면 직접 방문하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천도시가스 고객센터센터(1600-0002)에 확인한 결과,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일부 카드에 한해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하며 이용 가능한 카드는 신한카드(BC 제외) 및 삼성카드입니다.

# 인천 통통(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me2day  
twitter blog  
facebook social network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이탈리아 패션 접수하겠습니다!”

독자 백준하(19, 옥련동)



백준하님은 패션모델을 꿈꾸는 송도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업과 병행하며 화보촬영장이나 패션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모델학과에 진학해 패션모델의 꿈을 키우고, 나아가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이탈리아로 진출하겠다는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아빠, 엄마, 누나, 형 모두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인천은 우리 가족의 고향인 동시에 마음 편한 삶의 터전이다. 그 안에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바라보며 패션모델이 되어 이탈리아로 진출하는 꿈을 꾸다.

‘굿모닝 인천’과의 인연 부모님이 애독자여서 매월 ‘굿모닝 인천’이 집으로 배송된다. 올해 초 우연히 ‘그레이트 아시아 로드’ 기사를 본 후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다. 운동을 좋아해서 올해 치러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관심이 많다. 대회의 준비과정과 참가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좋다.

인천에 하고 싶은 말 운동을 좋아하는데 인천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운동장처럼 넓은 트랙이나 농구장, 배구장, 잔디 축구장 등이 많았으면 좋겠다. 올해는 특히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해이니 만큼 인천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및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시간마저 천천히 흐르는, 천년의 사찰

### 천년 동안 타오른 불법의 불

강화도 정족산(鼎足山)의 품에 안긴 전등사(傳燈寺)는 천년 동안 불법의 불을 밝혀 세상에 뿌려왔다. 이 절의 역사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고구려 소수림왕 11년(3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 승려인 아도화상은 정족산의 맑디맑은 기운에 이끌려 진종사(眞宗寺)를 창건했다. 전등사란 이름을 가진 건 고려 충렬왕의 비인 정화공주가 절에 순백의 옥으로 만든 등잔을 시주하면서부터다. 전등(傳燈)은 ‘불법의 불을 밝혀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득 일상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사찰로 향하자. 불자가 아니어도 좋다.

마음의 위안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품에 안으니. 예서라면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숨을 고를 수 있다.

이 봄, 맑고 깊은 기운 가득한 사찰로 떠나는 마음의 여행.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품은 전등사는, 자연 풍광도 수려하다. 그 안에는 500년의 시간이 스민 은행나무가 있고 신갈나무, 서어나무, 느티나무가 만들어 내는 깊고 그윽한 숲이 있다. 가을이면 단풍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뭉게뭉게 피어나 절경을 이루는 산사는 봄에도 잔잔히 아름답다. 도처에 핀 꽃무리가 고졸한 분위기의 사찰과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으로 곱게 피어난다.

### 눈길마다 발길마다 스치는 역사

시간을 거스르듯 성문을 지나 경내에 다다른다. 전등사는 대웅보전(보물 제178호)과 약사전(보물 제179호), 범종(보물 제393호) 등 귀한 보물을 품고 있지만 화려하기보다 담백하면서도 고아한 멋이 흐른다.

파사로운 봄 햇살 사이로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대웅보전이 모습을 드러낸다. 봄기운 때문일까. 네 귀퉁이에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裸婦像)은 힘겨워하기 보단 편안해 보인다. 대웅보전을 지은 도편수는 자신을 떠난 여인을 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부상을 빚었으리라. 바람결 따라 울리는 청아한 풍경소리가 귓가를 지나 마음에 다다른다.



나부상

무설전 서운갤러리



전등사는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이 서린 삼랑성(국가사적 130호)에 둘러싸여 있다. 만들어진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성곽이 쌓여진 모습이 삼국시대 성의 구조로 그 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이곳은 고종 3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을 물리친 역사의 장이기도 하다.

산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다. 서두를 필요 없다. 정상까지 오르는 데 십 여 분이면 충분하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 오르니, 봄꽃 흩뿌려진 숲 한가운데 아늑하게 안겨 있는 전등사가 보인다. 멀리 수더분한 강화 땅과 서쪽 바다도 시야를 메운다. 일상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씻겨 나간다.

### 산사로 향하는 마음

사찰 안에는 작은 미술관이 있다. 이곳은 종교와 예술, 시대의 경계를 허물며 사람들의 마음을 절로 이끌고 있다. 2년 전 새로 지은 법당 무설전(無說殿)의 한쪽 벽면은 갤러리로 꾸며져 있다. 절 안에 있지만 종교적인 색채가 짙지 않은 현대미술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법당 한가운데서 인자하게 세상을 아우르는 불상은 금빛을 벗고 새하얀 옷을 입어 편안하게 다가온다. 인체의 비례를 아름답게 표현해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고, 불상 뒤 벽화도 서구식 프레스코 기법으로 표현하여 이채롭다. 전통 사찰이 무겁고 엄숙한 이미지를 벗는 순간, 마음은 종교와 시대를 거슬러 부처의 가르침에 성큼 다가선다. 법당을 나와 사찰을 내려오는 길, 전통찻집에 들러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 천년의 고찰에서는 시간마저 천천히 흐른다. 예서라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두고 마음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으리라. 다디단 차 한잔에, 천년의 바람 따라 밀려오는 꽃향기. 아, 봄이 무르익었다.



**한 걸음 더 |** 전등사는 매년 초파일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하는데, 올해에도 오전 10시부터 야외법단에서 식을 진행한다. 이날 전등사에 가면 풀 향기 가득한 산채 비빔밥도 맛볼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나들이 삼아 둘러 보자. 한편 전등사에서는 매년 10월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추어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한다. 음악회, 다례제, 영산대제, 마당극, 전국학생미술대회, 글쓰기대회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위치 |**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인천터미널에서 700번 버스 이용)

**문의 |** 전등사 [www.jeondeungsa.org](http://www.jeondeungsa.org), 937-0125





공기는 맑고 사방은 고요하다. 종교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옛 건축물의 그윽한 멋에 취해, 누군가는 수려한 자연의 정취에 반해, 누군가는 영혼을 쉬고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절을 찾는다. 도처에 봄기운이 가득한 5월, 마음에 꽃 한 송이를 피우러 사찰로 간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 마음에 고운 꽃 어리다



## 템플스테이 마음을 닦는 짧은 출가

산사의 하루는 어둠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생명을 깨우는 목탁 소리와 함께 시작한다. 깨끗한 마음으로 새벽 예불을 드리고 정갈한 음식으로 발우공양을 한 뒤 도량을 청소하고 정리하며 몸과 마음을 닦는다. 또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인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스님이 던지는 물음에 답을 찾으며 본래의 나를 되돌아본다.

템플스테이는 사찰에 머물며 스님의 일상을 체험하는 일종의 짧은 출가. 불교에서 말하는 사찰은 몸과 마음의 거울을 닦는 도량으로, 산사 체험을 포교가 아닌 마음의 휴식을 얻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된다. 강화 전등사에서는 잠시 일상을 떠나 수행자의 생활을 경험하는 체험형, 편하게 쉬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휴식형, 3~4시간 정도 사찰을 체험하는 템플라이프를 진행한다. 외국에서 온 스님들이 수행하는 연등국제선원은 내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한국 선(禪)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의 향기를 퍼트리고 있다.

전등사 [www.jeondeungsa.org](http://www.jeondeungsa.org), 937-0125,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연등국제선원 [www.산사체험.kr](http://www.산사체험.kr), 937-7033, 강화군 길상면 강화동로 349-60

## 사찰 산책 산사의 고요를 누리며 걷다

쉬어도 쉬어도 뒷목에 묵직한 부피감이 느껴진다면 고요한 산사로 발걸음을 옮기자. 백운산은 나지막하지만 영종도 한가운데 봉긋 솟아 정상에 오르면 섬과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이 발아래 놓인다.

백운산 동북쪽 기슭에 자리 잡은 용궁사(龍宮寺)는 신라 문무왕 10년에 원효가 창건한 고찰로, 아담하지만 그 무게와 깊이가 다르다. 절 마당에는 기나긴 세월을 비밀스레 품고 있는 느티나무 한 쌍이 사이좋게 서있다. 그 곁을 지나면 아늑하고 운치 있는 오솔길이 나온다. 흐드러지게 핀 꽃무리가 어서 오라 손짓을 한다. 들리는 것은 나뭇잎이 한들거리는 소리뿐인 조용한 산길. 숲은 하늘이 안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자연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산사의 고요 안에서 몸과 마음의 독을 씻어낸다.

용궁사 746-1361, 중구 운남로 199-1

## 연꽃 핀 풍경 맑음으로 충만하게 피다

휴탕물 속에서도 깨끗하게 꽃을 피우는 연꽃은 청아함을 상징한다. 물 위에 어린 꽃잎은 보는 이의 마음도 맑음으로 충만하게 한다.

강화도에는 고려 제2의 선찰이었던 선원사(禪源寺)의 터인 강화선원사지(사적 제259호)가 있다. 선원사는 불력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대장도감을 설치해 팔만대장경을 판각하고 보관한 불교의 성지였다. 조선 태조 7년에 허물어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다가 1976년에 절터를 발견해 지금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은 해마다 연꽃이 절정을 이룰 때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들이 보러 오는 것은 선원사 복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원 스님이 꽃피운 인천 최대의 연꽃 군락지다. 4만9천600여㎡에 이르는 대지 위에 때가 되면 연꽃, 창포, 수련 등의 꽃무리가 황홀하게 피어오른다. 창포와 수련 꽃은 5월 중순에, 연꽃은 8월에, 들국화는 11월에 만개한다.

연꽃은 수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여 스님들이 차로 우려 내 마음에 들이곤 한다. 사찰에서 공양하는 연잎밥은 향기로운 연잎에 찹쌀, 은행, 잣, 호두 등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몸과 마음을 넉넉히 채운다.

선원사 [seonwonsa.com](http://seonwonsa.com), 933-8234, 강화군 선원면 선원사지로 222



한 걸음 더

## 불교 전통문화의 숨결 가득한 박물관

도심 한가운데 오롯이 자리 잡은 구양사. 인천무형문화재인 능화스님이 수련하는 사찰로, 범패와 작법무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자료들이 가득하다. 불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스님들의 노래를 통해 의식을 행해왔다. 범패와 작법무는 불교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음악과 무용을 이른다. 사찰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범패박물관이 있으며 범패 관련 유물 800여 점과, 관련 사진 4만 여 점, 민속유물 250여 점 등을 품고 있다. 감은사지사리탑, 황금사리, 고려동종, 아미타삼존도 등이 눈에 띈다.

인천에는 국내 유일한 범패박물관과 함께 세계에서 하나뿐인 단청박물관도 있다. 바로 인천무형문화재 단청장 기능보유자인 정성길 선생이 운영하는 해명단청박물관이다. 그는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전등사 등 우리나라 유명 사찰의 단청불사에 힘을 모은 장인으로, 불상, 불화, 무속도 등 30여 년간 전국에서 모은 귀한 보물 2천여 점을 세상에 선보이고 있다. 오방색으로 물든 단청의 섬세한 문양이 마음을 오래도록 붙잡는다.

범패박물관 886-0029, 남구 경인로 70번길 11-13  
해명단청박물관 868-5898, 인천 중구 중앙동3가 4-59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삶의 혜안<sup>慧眼</sup> 보이는 ‘아름다운 100세’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어르신들은 ‘도서관’에 비유된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세상의 산지식을 두루두루 꿰뚫고 있다는 의미다. 100세. 예전엔 사람의 수명 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의 상수(上壽)라 불리는 이상적인, 꿈의 나이였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백년도 못사는 인생’이라는 말로 인생의 허망함과 짧음을 비유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는 현실이 돼가고 있다.

인천도 장수도시에 해당된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은 593명이다. 2009년 112명에서 2010년 416명으로 급증했고, 2011년 459명, 2012년 512명, 2013년 575명이었다. 그렇다면 인천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이 사는 장수동네는 어디일까.

100세가 넘는 노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남구와 부평구였다.

인천에 사는 100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 통해 장수 노인들이 걸어온 길을 들여다 보자.



100세때 생긴 직장암도 이겨  
정군수 할머니(103세)

103세의 정군수 할머니를 만나러 검암으로 가는 길  
가에는 봄의 화신인 벚꽃이 그 환상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꽃이나 인생이나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다.  
정군수 할머니는 약간 허리가 굽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말고는 말쑥씨 또박또박하고, 맑은 눈, 고운 피부를 가져  
103세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는 꽃분홍색의 잠바  
를 입고 있었고, 여전히 고왔다. 그는 103년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객들에게 낭랑한 하이톤의 목소리로 자신의 인  
생 이야기를 펼쳐 놓았다.

“인생이 일장춘몽 같아요. 어차피 다 없어질 텐데 움켜  
쥐봐야 소용없어요. 나누면서 살아야 복 받아요.”

1912년생인 할머니는 20세에 결혼해 6남매를 낳았다.  
시아버지는 보성전문학교를 나와 판사를 지냈고, 남편은

사법서사로 활동한 가풍있는 집안이었으나, 6·25 전쟁  
으로 집안은 기울고 어려워졌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자식  
들을 위해 생계에 뛰어들었다. 황해도에서 피난온 뒤 아  
이들과 생계를 위해 집에서 한복을 만들었다. 바느질 솜  
씨가 좋았고 정성스레 만들기에 주문이 밀려들었다. 삶은  
고생스러웠지만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던 시절이다.

정 할머니는 막내 아들 이완기(59, 사진)씨 부부와 산다.  
아들, 며느리가 직장에 가고 나면 방 청소, 식사하고 난  
후 설거지는 할머니가 깔끔하게 처리한다. 아직도 손놀림  
이 젊은이 못지않게 빨라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할머니는 103세의 나이에도 쉬는 법이 없다. 계속 몸을  
움직인다. 동네에 놀고 있는 땅을 텃밭으로 개간해 농작





물을 심었다. 땅주인으로부터 농사를 짓지 말라는 항의도 받았지만 땅주인을 설득해 농사를 지었다. 혼자서 돌을 골라내고 땅을 고르며 씨앗을 뿌렸다. 텃밭 일을 하면 등이 땀으로 젖어도 보람과 기쁨은 크다. 올해는 쥐눈이콩, 팔, 강낭콩을 심었다. 여기서 수확한 농산물도 동네교회, 노인대학,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이다.

할머니는 수의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아들과 직접 시장에 가서 삼베를 떼어다 수의를 만든다. 할머니는 고생해서 만든 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보람이라는 생각에 삼베를 빨아서 풀을 먹이고, 다림질을 꼼꼼히 하는 수고를 거친다. 수의는 형편이 어려워 수의 마련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제까지 20여 벌의 수의를 전달했다. 할머니는 아직도 건강을 자신한다. 지병이 없고, 정신이 맑다.

100세를 넘긴 할머니의 밥상은 소박하다. 잡곡밥에 찌개, 김치, 한두 가지 야채 밑반찬이 전부다. 육식을 즐기진 않는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다.

할머니에게도 건강의 위기가 있었다. 3년 전 100세때 직장암이 발견됐기 때문. 할머니의 나이를 알고 의사는 수술을 꺼렸지만 나이에 비해 강건한 것을 알고 수술을 집도했고, 다행히도 건강을 다시 회복했다. 할머니는 지금 암이 깨끗이 치료된 상태다. 할머니의 친정어머니도 100세에 돌아가셨다.

100년을 넘게 살면서 할머니는 울고싶고 힘들었던 수많은 고비를 넘겼다. 가장 좋았던 시절은 잘사는 집에 시집 와서 5년간 남편과 행복한 신혼시절을 보냈던 때와 아들들 잘 키워 훌륭한 어머니로 칭찬받았을 때 삶의 보람을 느낀다.

정 할머니는 남은 여생을 더 많은 기부에 힘쓰고 싶은 소망이다. 100년을 살았어도 인생이 잠깐인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일만 해도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오늘도 텃밭을 개간하며 돌을 고른다.



## 스트레스 줄이며 건강한 노년활동

### 노덕종 할아버지(101세)



1914년생인 노덕종 할아버지의 고향은 황해도 송화군 상리면이다. 할아버지는 젊은날 고향을 떠났다. 북쪽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고, 이것이 발각되면서 고향을 등졌다. 그에게는 고향에 부인과 두 자녀가 있다.

남한으로 내려온 할아버지는 공사장의 일꾼으로, 시골의 농사꾼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었다. 대한민국에 와서도 여전히 '반공투사'로 활동했고, 이로 인해 고초를 겪기도 했다. 지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족은 아들이 아닌 조카 내외다. 조카 노문호(78) 어르신도 6·25 전쟁이 나자

인천으로 피난을 나왔고, 65년도에 삼촌을 만난 뒤 50여 년을 같이 살고 있다. 조카와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혈육을 만난 기쁨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주일 을 울었다.



노 할아버지는 100세를 넘게 장수하고 있지만 밥상은 특별하지 않다. 식사는 가리는 것 없이 국, 밥, 반찬을 골고루 먹고 고기류도 좋아한다. 술도 즐긴다. 젊었을 적엔 운동도 많이 했다.

할아버지는 노인대학 가는게 노년의 소소한 즐거움이다. 그곳에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무엇보다 행복하다. 노인대학에서도 할아버지는 최고령이다. 얼마 전에는 노인대학에서 할아버지의 건강과 장수를 기념하는 '강건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100년의 세월을 굵이굵이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인생에서 제일 기뻐던 일이 무엇이라고 물었다. "처음 색시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제일 좋았고, 아들이 태어나 아버지가 됐을 때 가장 기뻐다"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부평구 청천동에서 70여 년 가까이 살았다. 인천은 그에게 제2의 고향이다. 그래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간다. 입버릇처럼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말을 되뇌다. 조카가 "고향에 가서 뭐하실래요."하고 물으면 "농사지으며 살지"하면서 무덤덤한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꽃 피운다. 고향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어머니의 숨결같다.

할아버지는 황해도에 남기고 온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 적십자사에 '이산가족상봉' 신청을 여러 번 한 바 있다. 들려온 답은 가족들이 행방불명되어 찾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노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이 돼야 만백성이 편안해진다는 생각이다. 눈에 선하고 애뜻한 고향 땅을 그가 살아서 밟아 보기를 소원한다. 그러기 위해 할아버지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있어, 세상은 다시 아침입니다



하루하루 빛의 농도가 쌓여 봄에서 여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탐스러운 햇살 공기마저  
깊고 따사롭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슬프고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맑은 눈동자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사랑한다 말하고 두 뺨을 비비고  
품에 안아 주세요. 아이들은 이달을 이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맑은 웃음소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해 주세요.

아이들이 있어, 세상은 다시 아침입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 동심으로 물든 이색마을

어린 시절 보고 느끼는 경험 하나 하나는 미래를 만드는 자  
양분이 됩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벗어나 아이를 더 특별하  
고 의미 있는 공간에서 뛰놀게 하세요. 아이의 키도 마음도  
훌쩍 자랄 겁니다.

**이용 포인트** | 마을이 넓지 않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아이와 도란도란 걷기 좋다. 추천 동선은 도로시길 → 빨간  
모자길 → 북극나라길 → 바다나라길 → 성의 나라 → 과자  
나라 → 앨리스길 → 엄지공주길 → 신비의 길 → 동물나라  
길. 포토존이 따로 있지만, 마을 어디든 카메라를 들이대면  
바로 작품이 된다. 마을 중간중간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  
영하는 스낵바가 있다.

**위치** | 중구 자유공원서로45번길 52  
(인천역에서 도보로 15분)

**주변 즐길거리** | 차이나타운, 응봉산 자유공원, 신포시장 등  
**문의** | 중구 관광진흥실 760-6841

## 왕자님 공주님 세상 송월동 동화마을

‘동화마을’이라고 쓰인 무지개빛 아치형 입구를 지나는 순간, 상상하던 꿈  
이 현실로 나타난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피터팬과  
팅거벨….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동화 속 주인공들이 벽을 걸러폴하  
게 수놓아, 마치 동화 속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하다.

응봉산 자락에 있는 송월동은 산 좋고 물 맑아 개항 이후 외국인들이 모여  
살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점차 쇠퇴해갔다. 빛  
을 잃어 가던 마을이 생기를 찾은 건, 지난해 12월 중구가 송월동을 동화  
마을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부터다.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  
록 낡은 담에 색을 입히는 것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송월동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 주말이면 2천여 명의 관광객이 이웃한 차이나타운, 자유  
공원 등과 함께 이 동네를 찾는다. 낡은 담장 안으로 공공 숨어 있던 주민  
들도 마음을 활짝 열었다.

“노인네들만 사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이젠 활기가 넘쳐요. 주민들도 많이  
변했어요. 대화도 자주 오가고 함께 웃는 일도 많아졌답니다.” 송월동에서  
20여 년을 살아 온 이정선(65) 할머니는 후미졌던 골목에 부는 변화의 바  
람이 반갑다.

잇고 있던 꿈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사랑스러운 나라. 송월동 동화나라에  
가면 입가에 절로 예쁜 웃음이 만개한다.



## 마을에서 세계여행 다문화공원

꿈을 펼치기에 우리나라는 너무 좁다. 21세기 국제도시 인천에 사는 어린이들은 꿈도 남다르다.  
아이들이 더 큰 세상을 열어가도록 안목을 키워 줄 공간이 가까이 있다.

토요일 아침, 남동하모니센터. 아이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예쁜 목소리로 한국어를 따라하고 있  
다.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 7만 5천여 명에 이른다. 머리색이 다르고 피부색이 틀리지  
만, 따뜻한 마음은 하나. 남동구는 지난 2012년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소통을 이루고자 남동  
하모니센터의 문을 열었다. 한옥으로 멋스럽게 지은 2층 건물에는 아이들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어울릴 수 있는 북카페와 강의실 등이 마련돼 있다. 또 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진 하모니공원에는  
18개 나라를 소개하는 조형물과 포토존,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이 있다. 주말이면 무대에서 세  
계 각국에서 온 시민들이 각자의 문화를 선보이며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을 연다.

“우리는 마을에서 세계여행해요. 친구들이 하는 외국어가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밝은 눈동자의  
아이들에게 편견이란 없다. 새로운 친구들과 살 부비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이 마냥 신나고  
즐거울 뿐이다.

**이용 포인트** | 영어권은 물론 베트남, 중국, 일본, 몽골, 태국 등 다양한 나라의 도서가 구비된 북카페에서 세  
계 여행, 글로벌에티켓교육을 통해선 다문화 강사로부터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 관내 어린이  
집 및 유치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위치** | 남동구 호구포로 203-31(수인선 호구포역 1번 출구)

**주변 즐길거리** | 논현포대근린공원, 남동타워, 한화기념관(한화화학박물관), 소래포구 등

**문의** | 남동하모니센터 453-5655~8





# 아이들에겐 역시 테마파크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들이 1순위는 역시 테마파크. 뱅글뱅글 썰썰~ 갖가지 놀이기구가 있는 테마파크는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별천지입니다.



**이용 포인트**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증정, 페이스페인팅, 마술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한 가지 더, 지하 공연장에서 열리는 매직버블벌룬 공연도 놓치지 말자.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개별 놀이기구 티켓(어린이 3천500~5천원 어른 4천500~6천원)이나 자유이용권(어른, 어린이 3만원)을 구매해 이용한다.

**위치** | 중구 월미문화로 81  
(인천역 1번 출구에서 45번 버스 탑승)

**주변 즐길거리** | 월미문화의거리, 월미전통공원, 월미전망대, 이만사박물관 등

**문의** | 월미테마파크 [www.my-land.co.kr](http://www.my-land.co.kr), 761-0997

##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미테마파크

월미도 바다 앞에 동화처럼 펼쳐진 ‘월미테마파크’. 한때 소풍을 갔다하면 월미도, 놀이기구를 탔다하면 디스코팡팡이던 시절이 있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은 인천의 대표적인 놀이시설로 사랑받고 있다. 월미테마파크는 1992년 마이랜드로 시작해 2009년 1만3천223m² 규모로 새롭게 조성, 지금 종합 테마파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푸른 하늘에 걸쳐진 115m 높이의 대관람차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방망이질 친다. 이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오르면 인천 앞바다와 저 멀리 인천대교, 팔미도, 영종도까지 품에 안을 수 있다. 한편에는 전설의 디스코 놀이기구 ‘타가다’가 현란한 불빛을 뿌리며 빙글빙글 돌아간다. 의자에 앉아 70m 높이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하이프드롭’은 바다가 곁에 있어 더 스릴 있다. ‘바이킹’과 ‘크레이지 크라운’도 신이 나서 춤을 춘다. 2층 높이의 바이킹은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로 입소문이 났으니, 심호흡 크게 쉬고 도전해야 한다. 키 작은 아이들은 회전목마와 꼬마기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난다. 범퍼카를 타고 팡팡 부딪칠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이 터져 나온다.



## 스피드 레이서처럼 썰썰~ 차피패밀리파크

차피패밀리파크는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키즈카페다. 캐릭터 차피가 세계를 여행하는 콘셉트로 코너마다 다양한 놀이공간이 마련돼 있다. 벽에 도형을 끼워 맞추며 노는 블록 체험존, 악기를 두드리며 오감을 활짝 깨우는 음악체험존, 역할놀이존, 통밀체험존, 볼배틀존, 미끄럼틀&볼풀존 등 다양한 놀이공간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곳은 카트라이더 레이싱 존. 카트에 몸을 싣고 실제로 레이싱 경주를 하듯 맘껏 달릴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 차피패밀리파크는 본점 월미점을 시작으로 인천 논현점, 경기도 동탄점, 부산 해운대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논현점은 소래포구종합어시장에 있어, 근처 소래포구와 소래역사관 등과 함께 온 가족이 하루 나들이 코스로 즐기기에 좋다.

**이용 포인트** |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레이싱카트로 온가족이 즐기는 레이싱. 여기에 멋진 로봇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출 수 있는 공연장 그리고 아이들의 IQ와 EQ를 쑥쑥 키우는 놀이체험 공간까지. 이용 요금은 2시간 기준으로 차피패밀리파크입장권 및 카트 1회 이용권은 어른 6천원, 어린이 1만6천원, 카트 자유이용권은 어른 1만원 어린이 2만원.

**위치** | 월미점(월미테마파크 내), 인천 논현점(소래포구 종합어시장 3층)  
**주변 즐길거리** | 소래포구, 소래역사관,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인천 논현점)

**문의** | 차피패밀리파크 [www.chappy.co.kr](http://www.chappy.co.kr), 월미점(070-8801-8525), 논현점(718-3305)

여기는  
어때요?

## 초록 양탄자 위에서 놀자 ‘글램핑’

초록빛 드넓은 필드가 두 팔 벌려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스카이72 골프클럽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글램핑 어린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골프클럽 글램핑(Glamping) 빌리지에서 온가족이 캠핑을 즐기고 아이들은 축구와 골프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온가족이 자유롭게 캠핑과 바비큐 파티를 즐기면 된다. 지금지금 바비큐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초록빛 필드 위로 가득 퍼진다.

**일시 및 장소** | 5월 3일~6일,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글램핑 빌리지

**문의** | 스카이72 골프장 741-8690





Culture Info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2014. MAY

12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7

스테이지149- 프랑스 ‘매직더스트 Magic Dus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 전석 2만원  
☎ 1588-2341

어린이창작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오전 11시 / 전석 2만원  
☎ 500-2000

어린이 영어 스토리텔링 ‘배고픈 애벌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0시 30분 / 전석 2만원  
☎ 500-2000

사랑방 시네마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

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선착순 무료  
☎ 505-5950

8

스테이지149- 프랑스 ‘매직더스트 Magic Dus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 전석 2만원  
☎ 1588-2341

어린이창작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오전 11시 / 전석 2만원  
☎ 500-2000

어린이 영어 스토리텔링 ‘배고픈 애벌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오전 10시 30분 / 전석 2만원  
☎ 500-2000

9

인천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소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 1588-2341

황.금.토.끼 가족뮤지컬 ‘용궁으로 간 토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오후 7시 / 무료  
☎ 420-2742

어린이창작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 전석 2만원  
☎ 500-2000

어린이 영어 스토리텔링 ‘배고픈 애벌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0시 30분 / 전석 2만원  
☎ 500-2000

10

인천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소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30분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 1588-2341

버블J의 아쿠아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전석 3만원  
☎ 오편기획 031-258-9053

황.금.토.끼 ‘인천시립무용단 다섯 손가락’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42

어린이창작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30분, 오후 2시30분 / 전석 2만원  
☎ 500-2000

어린이 영어 스토리텔링 ‘배고픈 애벌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0시30분, 오후 1시30분, 3시30분  
전석 2만원  
☎ 500-2000

인천교통방송 특집 공개방송 ‘소래, 바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오후 5시 / 1천원  
☎ 453-5710

11

인천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소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 1588-2341

제9회 기타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 전석 1만원  
☎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833-2080

2014 일요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쑤’ ‘한울소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 한국국악협회 인천시지부 875-4644

어린이창작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11시 30분 / 전석 2만원  
☎ 500-2000

어린이 영어 스토리텔링 ‘배고픈 애벌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전석 2만원  
☎ 500-2000

13

사랑방 시네마 ‘지상의 별처럼’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선착순 무료  
☎ 505-5950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 무료  
☎ 899-1516~7

14

인천카톨릭혼성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 765-6962

커피콘서트 V 해설이 있는 발레 ‘국립발레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1588-2341

샌드아트&환상의 버블쇼

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 3천원  
☎ 507-5996

15

인천사랑의부부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 / 초대  
☎ 766-4452

브런치콘서트 ‘김가은 재즈 트리오’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오전 10시 / 전석 1만원  
☎ 580-1163

16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36회 정기연주회 ‘2014 Piano & Pianist 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1588-2341

밴드데이비 ‘탈라스윗’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8시 / 전석 2만원  
☎ 1588-2341

황.금.토.끼 평양민족예술단 ‘우리는 하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42

사물놀이 ‘진쇠&연희’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30분 / 3천원  
☎ 505-5995

17

2014 이미지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6시 /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 (주)하늘이엔티 322-2121

예오름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1만원  
☎ 819-1998

황.금.토.끼 두드림 콘서트 ‘스틱컬 쿵팡’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42

공동기획 2014 플랫폼 초이스 ‘모르는 네사람 만지기’

인천아트플랫폼 야외 / 오후 1시, 3시 / 무료  
☎ 박나훈 무용단 760-1005

공동기획 2014 플랫폼 초이스 ‘시간은 무게다’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 오후 6시 / 1만원  
☎ 댄스컴퍼니 760-1005

18

신명박규리전통춤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5시 / 무료  
☎ 544-3213

2014 일요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쑤’

‘은율탈춤보존회’ / 오후 5시  
☎ 한국국악협회 인천시지부 875-4644

공동기획 2014 플랫폼 초이스 ‘시간은 무게다’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 오후 6시 / 1만원  
☎ 댄스컴퍼니 760-1005

21

제1회 사랑의 힐링콘서트 - 바리톤 장유상 독창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30분 / 초대  
☎ 힐링예두 421-7172

사랑방 시네마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선착순 무료  
☎ 505-5950

23

미추홀오페라단정기공연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435-1281

이형규오보에전국투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 02-529-5081

황.금.토.끼 ‘해피바순 앙상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오후 7시 / 무료  
☎ 420-2742

공동기획 2014 플랫폼 초이스 ‘풍경 Landscape’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오후 4시, 7시 토·일 오후 3시, 6시 / 1만원  
☎ 씨니킴 760-1005

24

미추홀오페라단정기공연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435-1281

과학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7시  
전석 3만원  
☎ 상상숲 02-2681-2069

황.금.토.끼 흥겨운 콜라보레이션 ‘사운드 박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상상숲무료  
☎ 420-2742

손숙 ‘어머니’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2만5천원, A석 2만원  
☎ 580-1135

25

미추홀오페라단정기공연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435-1281

과학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3만원  
☎ 상상숲 02-2681-2069

2014 일요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쑤’

‘김영남 소리꾼 조경곤 고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 한국국악협회 인천시지부 875-4644

공동기획 2014 플랫폼 초이스 ‘풍경 Landscape’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오후3시, 6시 / 1만원  
☎ 씨니킴 760-1005

27

식생활교육뮤지컬 ‘편식쟁이 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 무료  
☎ 사랑극단 꼬마세상 010-2898-0014

사랑방 시네마 ‘지상의 별처럼’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선착순 무료  
☎ 505-5950

29

인천예술고음악과 제17회 무용과 정기발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433-3176

브런치 오페라 <라보엠>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1만원  
☎ 500-2000

30

인천예술고음악과 제17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433-3175

클래식&팝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인천음악협회 873-7772

황.금.토.끼 ‘해설이 있는 꿈의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42

사랑방 시네마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선착순 무료  
☎ 505-5950

31

명품클래식시리즈Ⅲ ‘앤더슨&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 1588-2341

황.금.토.끼 ‘인천시립교향악단 브라스 판타지아 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42

서울기타콰르텟 ‘Happy Concert’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오후 7시 / 1만원  
☎ 760-1005



## 별을 헤던 소년, 낡은 사진에 빠지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별과 산을 관찰하기 좋아했던 소년은 밤을 하얗게 새면서 밤하늘 별들이 이동하는 모습, 산의 높낮이, 위치와 각도를 눈여겨보고 머릿속에 새겨놓곤 했다. 소년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머리는 컴퓨터처럼 정확했다. 김식만(64) 치과의사는 사진 판독에 관한 전문가 수준이다. 그는 ‘인천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지금은 보기 힘든 인천의 옛 사진을 올리고 있다. 그냥 옛 사진에 불과했던 필름들이 그의 설명과 판독으로 생명력 있게 부활한다.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은 1900년대부터 근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자료들은 인터넷, 잡지, 책에서 발췌해 모았다. 사진을 구하느라 미추홀, 화도진도서관 향토자료실을 제집처럼 들락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얼마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시절 휴가를 즐기던 사진을 올려 블로거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 사진 속 장소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가 60년대 같은 장소를 찍었던 사진과 비교하면서 송도유원지임 분명히 확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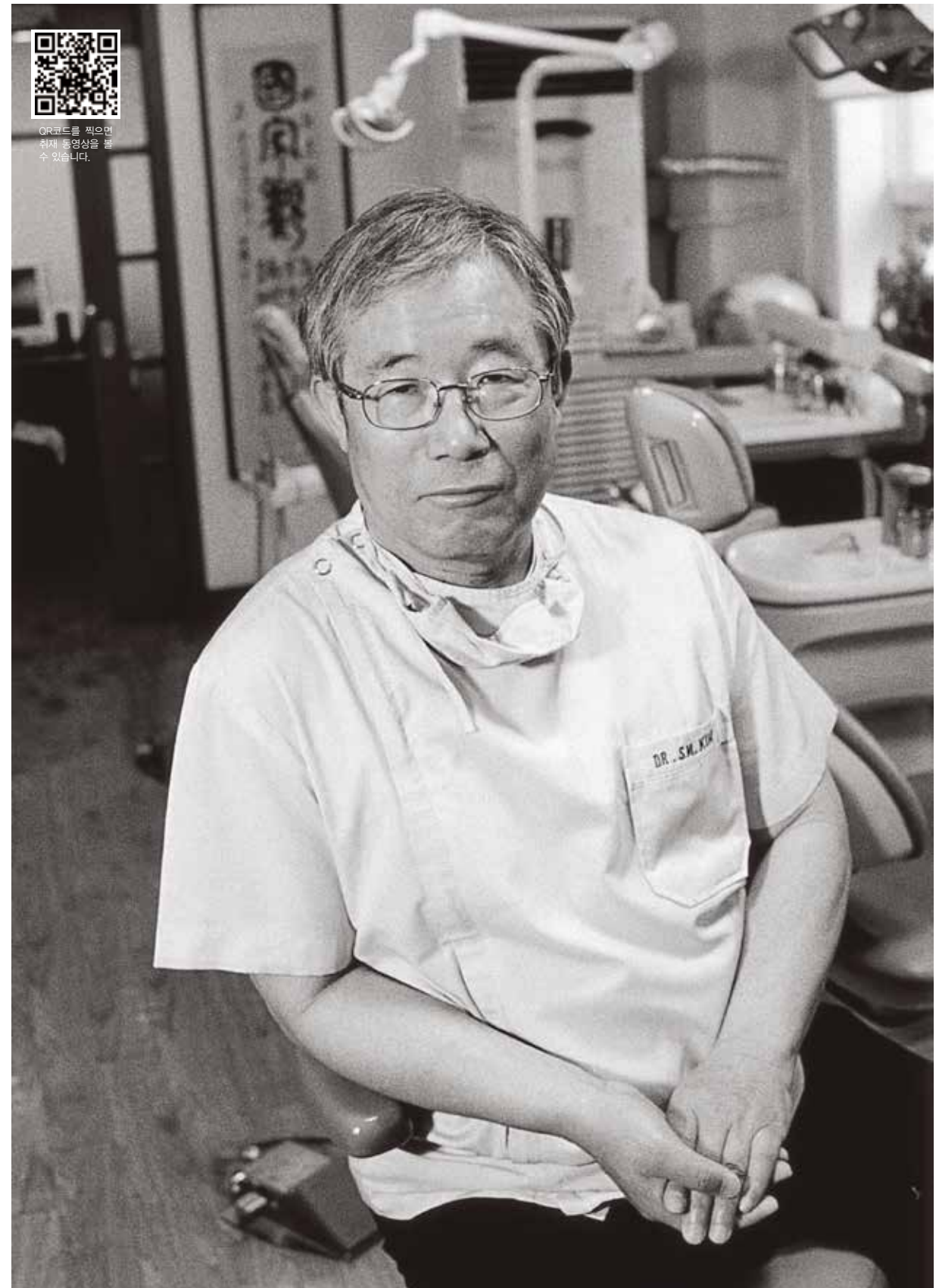
김식만 선생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 사진 판독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없어진 주인선을 추적하면서다. 있을 땐 몰랐는데 주인선이 없어지니까 한 시대를 관통했던 역사가 소멸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주인선과 수인선의 흔적과 역사를 찾아 용현동에서 소래까지 걸어가 보기도 했다.

그는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인천 지명이 잘못 불리는 것도 안타깝다. 남구 독정리, 영종 운암도가 대표적인 경우다. 독정리는 독쟁이로, 운암도는 운검도로 불리는 게 맞다. 수인선도 역명이 잘못 변천된 게 많다고 주장한다.

김 선생은 최근 인천시에서 제공한 60년대 항공사진 1천여 장을 스캔했다. 사진 판독을 위해서다. 항공사진을 판독하는 사람도 없고 판독도 잘못된 경우가 많아 자신이 직접 해볼 생각이다. 사진판독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 인천의 역사, 지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도 섰다.

그는 자신이 남달리 사진판독을 잘하는 것이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관심, 고향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며 겸손해한다.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이고, 알면 사랑하게 된다. 어린시절 별을 헤고,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익히고 길렀던 지리, 공감각 능력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셈이다.

등고선만 봐도 그 산의 높낮이가 입체적으로 보이고 느껴진다는 그는 여생을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더 빛내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바칠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도 도서관에서 찾아낸 낡은 사진을 보며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읽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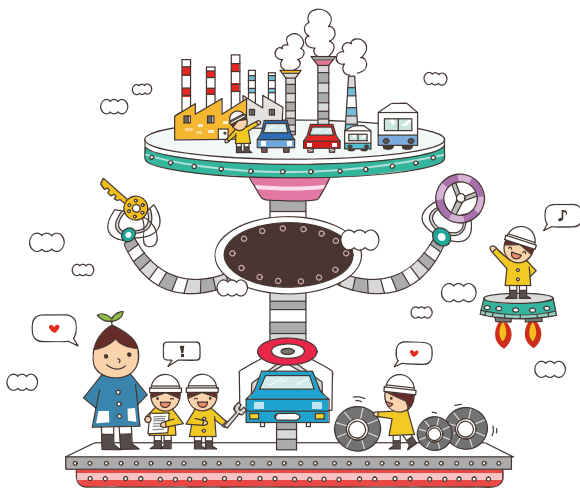
## 폐자원의 아름다운 순환

글 장미숙 시 사회적경제과

주식회사 아인(남구 도화동)은 버려지는 자동차 부품을 다시 제조해 재활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아인은 2005년 설립해 2013년에 인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아인에서 생산하는 주요 자동차부품은 등속조인트, 시동전동기, 얼터네이터(Alternator)다. 자동차 부품을 수거해 차종별로 분류한 후 부품을 분해해 파손된 부품은 폐기·교체하고 부품 세척, 조립, 선별검사, 도색 및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새롭게 완성한다.

하지만 이 같은 철저한 제조 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제조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품질을 의심하고 사용을 주저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아



인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교류발전기 성능시험기 개발을 완료했으며, 제조된 부품은 송도의 자동차 기술센터에 의뢰해 품질검사하고 있다. 또한 정품 얼터네이터의 보증기간이 1년에 2만km인데 재제조품 또한 정품과 같은 기간과 성능을 보증하고 있다.

올해 아인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네 가지 목표를 세우고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첫째는 매출 8억원 달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카포스(자동차전문정비조합연합)와 브랜드 계약을 맺고 지정업체를 통해 납품해야 한다. 전국의 카포스 조합은 1만8천개 정도다. 둘째는 베트남 수출의 안정적인 성과, 셋째는 자동차정비업소인 카하우스 점포의 확장, 넷째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19명인 직원을 5~6명을 추가 고용하는 것 등이 회사의 목표다. 아인은 작년에 지역사회를 위해 매월 30명의 다문화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에게 영어교육을 지원했고, 지역자활센터의 차량 정비 시 할인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에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환원할 계획이다.

아인의 윤정수 대표는 “지구는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곤 합니다. 기존의 제품을 재활용해 함께 나누는 것은 나누는 이에게 함께 하는 기쁨을, 받는 이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여유입니다. ‘폐자원의 아름다운 순환’을 통해 함께 나누고 미래의 희망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입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저는 인천이 자랑스롭습니다

글 신정원 인화여고 3학년, 인천청소년명예외교관



“인천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바로 답이 떠오르시나요? 이 질문은 제가 인천청소년명예외교관 면접 때 받았던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천에 살면서도 답을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인천조차도 모르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알리는 외교관을 꿈꾸는 제가 껄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인천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천에 대해 알아가는 청소년 명예외교관 활동 중 작년에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한류콘서트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과 인천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과 인천의 위상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K-pop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인천 문학경기장에 모여 오랫동안 줄 서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K-pop의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이 많아진다는 점과 그러한 관심의 중심이 인천에 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중 외국인들과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는 한국이 대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시장님들과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토의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자연과도 공존하는 인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미래에 대해 토의하는 대화의 장이 인천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바다와 인접해 위치한 인천의 지리적 특성은 큰 대화의 시발점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세계 1위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GCF(녹색기후기금)와 UNESCAP(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가 유치된 G-Tower를 포함해 지금의 인천은 ‘국제 도시, 인천’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는 인천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인천시민이 세계로 뻗어나갈 인천을 위해 직접적인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인천에 많은 인천시민이 관심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뻗어나갈 인천의 앞길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단순히 지금의 힘든 일은 결국 지나갈 것이므로 힘을 내고 극복 하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일화를 접하고 이 구절이 자만 또한 자제하도록 권유하는 의미 또한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겸손을 잊지 말고 계속 노력하고 전진해야 한다.’ 이는 쉽게 나의 상황에 만족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만족하려 하는 순간에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채찍질하는 이 구절은 힘든 고3 생활을 견디게 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 15명 출산한

## 어머니에게 표창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보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정리 유동현 본지편집장

### 시민공동 위생에 낭보, 우물에 지붕 가설

시민위생 시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시 사회과에서는 저간 도당국에 시내 공동우물 개수용으로 목재를 신청한 바 있었는데 금번 현품으로 목재 4천2백여 ‘사이’가 입하되었다고 한다. 금번 입하된 목재는 각 동의 중요한 공동우물로서 현재 ‘뚜껑집’이 없는 우물에 대하여 ‘뚜껑집’ 건립용으로 배정하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각동의 공동우물 실태를 재검토한 후 우물 1개소에 대하여 목재 2백 ‘사이’씩 현품이 배당되리라 한다. 건립 공임 기타 부족 자재 등은 각자 동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

(1953년 5월 27일자)



### 납세표어 당선자 표창장 수여

징세원의 열의보다 납세하는 시민의 납세 의식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키 곤란함에 비추어 인천시 재무과에서는 일반시민의 납세 의식을 앙양시키고저 납세표어를 현상 모집한 바 있었는데 심사한 결과 일반부에 3명, 중고등부에 3명, 초등학교부에 3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일반부〉 ▲1등 장정현(송림동) ‘징세원 오기 전에 자진해서 납세하자’ ▲2등 유춘택(부천군 내무과) ‘세금 바쳐 조국건설 목숨 바쳐 조국통일’ ▲3등 지삼례(송월동)

‘한푼 절약 두푼 모아 모든 납세 다하자’ 〈중고등부〉 ▲1등 표동환(송도중) ‘애국애족한다 말고 납세 의무 지키자’ ▲2등 유의열(동인천중) ‘기계는 기름으로 나라는 납세로’ ▲3등 표명환(송도고) 전채 입은 우리나라 납세로서 복구하자 〈국민학교부〉 ▲1등 구자춘(문학국교) ‘불타는 애국심 납세로서 나타내자’ ▲2등 이요순(신흥국교) ‘세금많다 불평 말고 성의있나 생각하자’ ▲3등 김옥영(서곶국교) ‘외치는 애국심 납세로서 표현하자’ (1955년 5월 2일자)

### 육상 경기장 공사 활발

30만 시민의 체력 향상의 도장인 인천공설운동장에 ‘오림픽’ 규격에 알맞은 4백m 육상경기장이 한미친선위원회 양회(시멘트) 2천865포와 철근 805kg 기타 목재 등의 원조를 얻은 인천시는 4백5십7만환의 공사비를 들여 시내 유동 삼익건설사에 의해 지난 4월 20일 제 1차 공사에 착수하였다.

착공한 지 한 달 만에 본부석 측의 스탠드 138m의 6단 관람석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공사 실적은 76%나 진척되고 있어 6월 말일 준공 예정일로 정하였으나 예정보다 빨리 6월 24일 경에는 제 1차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하는데 다가오는 6·25 전쟁 기념행사도 이곳에서 거행하리라고 한다. 그리고 경기장 입구의 초입 양측과 맞은 편 커브 스탠드(곡선 관람석)는 제 2차 계획공사로 인천시의 신년도 예산이 허락되면 6,7월 우계(雨季)를 지난 8월 경에는 준공을 볼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오림픽’ 규격에 알맞은 동 스타디움이 완공되면 향도 인천의 30만 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의 유일한 체력 향상의 도장으로써 사용케 되며 현재 각종 경기에 사용되고 있는 야구장에도 번잡을 면하게 되리라 한다.

(1955년 5월 30일자)

### 나무를 꺾지 마시오

상춘지절을 맞이하여 시내 각 학교에서는 야외 소풍, 등산을 목적으로 만국공원, 송도, 수봉산을 비롯한 기타 사방 시공지, 식재 조림지에 함부로 들어가 사방 시설물의 파괴는 물론 어린 나무를 밟아 손상을 입히게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시내 각급 학교에 통첩하여 애림사상을 널리 계몽하여 차후로는 소풍을 간다할 지라도 사방시설물 유수(柚樹) 식재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는데 요즈음 꽃놀이를 즐기는 상춘객들도 각별 주의하여 애림녹화에 가일층 협조하여 주기바란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1956년 5월 2일자)

### 13명의 자녀를 둔 이돌\* 여사 등 표창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은 ‘어머니날’ 행사 주간으로 정하고 어머니의 사랑과 은덕에 감사하며 어머니들의 노고를 위로해 드리던 인천시는 이 주간이 끝나는 지난 14일 상오 10시 시 의회실에서 다산모(多産母)와 자녀교육에 이바지한 어머니 그리고 내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어머니 표창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다산한 어머니〉 ▲이돌\*(54세·화수동) 15명 출산, 13명 생존(남3, 여10) ▲차복덕(48세·송의동) 12명 출산, 11명 생존(남8, 여3) ▲강윤순(49세·도림동) 12명 출산, 11명 생존(남5, 여6) ▲진유숙(48세·석남동) 12명 출산, 11명 생존(남8, 여3) ▲김윤분 (39세·부평동) 11명 출산, 11명 생존(남6, 여5) ▲한태임(29세·관교동) 13명 출산, 11명 생존(남8, 여3) ▲이서향(40세·송현동) 10명 출산, 10명 생존(남6, 여4) ▲고귀남(46세·중앙동) 10명 출산, 10명 생존(남2, 여8) 외 10명 이상 다산모 18명 표창 수여 (1956년 5월 16일자)



5월의 햇살 아래,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이 반짝인다. 인천에서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미래 스포츠 스타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린다. 전국 각지에서 온 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를 하자.

##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 같은 4일, 전국소년체육대회



인천에서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린다. 올해 아시아 최대 스포츠 이벤트가 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사전 점검하고 준비하는 역할도 한다. 시는 우수한 대회 운영시스템과 시설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서 온 선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43개 경기장에서 총 33개 종목이 버라이어티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지은 신설경기장 10개소와 삼산체육관 등 기존시설 5개소를 포함 총 15개 경기장과 도원수영장 등 12개 훈련시설이 경기장으로 선수들을 맞는다. 새로 짓거나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보수 중인 조정(용인), 카누(용인), 사격(청원), 사이클(의정부) 4개 종목은 관외경기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장 보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열린 전국체육대회 때 사용했던 경기장을 보수해 26개 경기장을 우선 배정,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경기장을 확보했다.

시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도(제41회)와 대구(제42회) 등 역대 전국소년체전 개최 시·도를 방문해 전국소년체전에 대한 벤치마킹을 마쳤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체육회 등 유관기관 및 시·군·구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거쳐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해 안전하고 편안한 숙소대책도 마련했다. 선수단과 관람객이 편안하게 인천에 머무르며 경기를 치르고 관람할 수 있도록 우수 숙박업소를 발굴하고 숙박업소 환경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국소년체전이 인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440-4099, juniorsports.incheon.go.kr



#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

2014. 05.24-05.27

인천광역시 일원

주최 | 대한체육회 주관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체육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세월호 희생자의 슬픔,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합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안타까운 사고에 온 국민이 함께 울었다. 지난 달 16일 여객선 침몰사고가 일어난 세월호에 탑승한 476명 중 인천시민은 36명이었다. 이중 19명만이 구조됐다.

시는 이번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슬픔을 함께 나눴다. 또 이번 사고 희생자들의 원활한 장례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희생자들이 안치됐던 장례식장에 장례비용 지급보증을 해 유족들이 장례비용 문제로 장례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부평승화원과 만월당 이용에 따른 화장비용과 봉안 비용도 전액 면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인천시민 피해자도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이번 사고 희생자가 타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건의했다.

문의 : 시 총무과 ☎440-2503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우리는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4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족친화경영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지원, 근로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하는 경영전략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에 대한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8곳의 중소기업과 2곳의 공공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은 컨설팅 전문가로부터 최대 5회까지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또는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ifwf.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팩스(032-440-8685)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872

###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터넷 공짜!

우리는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공공장소에 대한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한다.

시는 지난해 전통시장 5개소와 복지시설 등 63개소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했고 지난달부터 전통시장 6개소, 복지시설 및 보건지소 등 총 134개소 대한 2014년도 확대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대중교통에 대한 점진적 확대보급도 추진하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와이파이로 전환하는 장비를 버스과 승강장에 설치해 시내버스 이용자가 무료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통신방식 인증 후 인천시에 등록된 2천200여 대 모든 버스와 주요 승강장에 대하여 무료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내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접속하면 누구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각종 휴대용 단말기의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시 U-정보통신담당관실 ☎440-3015

### 안쓰는 중고물품 자유롭게 판매·교환하세요

우리는 자원 절약과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2014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개최한다.

시가 주최하고 인천YWCA가 주관하는 나눔장터 행사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등에서 열린다. 의류, 도서, 장난감 등 중고물품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판매·교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판매 참가를 원하거나 물품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시 자원순환과 또는 인천YWCA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www.happynaum.com)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나눔장터에서 얻은 판매 수익금은 올 연말 불우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YWCA는 지난해 나눔장터 행사를 통해 모은 981만원을 어려운 이웃 20명에게 전달했다.

문의 : 시 자원순환과 ☎440-3572, 인천YWCA ☎424-0524

### 정신건강도 이제는 모바일로 행진다

우리는 지난달 7일 만능 스마트시대에 맞춰 정신건강의 스마트한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 모바일 홈페이지(icmh.or.kr/m)를 오픈했다.

정신건강 모바일 홈페이지에는 우울증을 비롯해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등 정신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시 불이익 등 평소 궁금해 했던 질문과 대답(FAQ)이 수록돼 있다.

특히, 모바일 안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구성하는 등 다른 모바일 홈페이지와 차별성을 뒀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440-2723



### 러시아 특화거리 조성한다

우리는 중구 우현로 일대에 국제타운 러시아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러 비자면제 협정 체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을 통해 유입되는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관광자원 개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연안부두 바리아크하 추모비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추모비에 헌화를 할 정도로 의미있는 장소인 만큼 러시아 예술제 개최 등의 관광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다.

러시아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국비 외에 지방비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월미관광특구 일대는 1883년 제물포항 개항과 더불어 근대도시로 성장했으며, 외교, 무역, 상업의 각축장이 됐던 곳이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440-4063



### 송도국제도시 진입교량 송도4교 10월 완공

송도국제도시 진·출입을 위한 4번째 교량인 송도4교가 오는 10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송도4교는 총연장 1천10m의 사장교로 접속교 618m와 사장교 392m로 구성된다. 이 교량은 남동구 고잔동~송도 5·7공구를 연결하게 된다.

지난달 초 93m 높이 주탑을 올렸으며 케이블과 상판 설치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사장교 공정에 변수가 많아 개통 시기가 예정보다 좀 더 늦춰질 수는 있다”며, “늦더라도 연내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매립이 끝나면 고잔동에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송도5교도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562

### 돌봄 여성근로자 건강안전망 구축

우리는 주민참여 예산과 연계한 ‘돌봄 여성근로자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을 민·관 협력체제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적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11월까지 돌봄 여성근로자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뿐만 아니라 일터건강 안전보건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질환 치료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상담, 마음치유교실, 인문학 강연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693



### 봄철 비산먼지 특별관리 주력

우리가 봄철 비산먼지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시는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중점 관리 사업장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군·구별로 이달 중순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70μg/m³ 이상 측정될 경우 측정소 주변지역에 민·관이 공동으로 청소하는 ‘물청소 알리미’ 등을 시행하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사 1도로 클린제 사업 등 분야별 먼지 저감 시책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지 다량 발생원인 방지 나대지에는 초화류를 파종하고 학교 운동장에 먼지 억제제를 살포해 날림먼지도 줄일 방침이다.

문의 : 시 대기보전과 ☎440-3523



### 송도에 데크 설치 허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데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청은 경관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일종의 야외 테라스인 데크를 점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협의를 거쳐 허용하고 향후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이태원, 명동 등 관광특구와 호텔에서만 데크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송도 내 허용 지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로 한정된다. 차도와 인도의 경계 지점부터 상가 건물까지 폭을 뜻하는 건축한계선 규모에 따라 데크 허용 폭에 차등을 둔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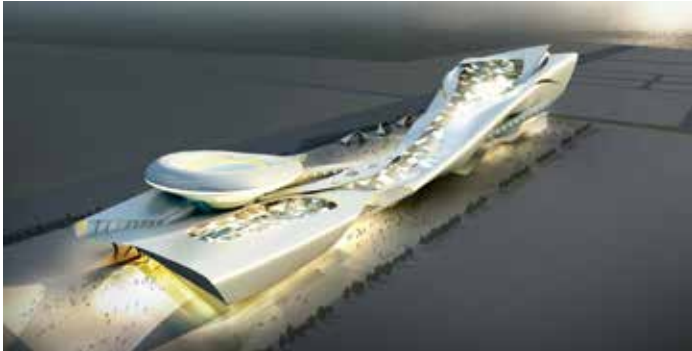
## News Brief

### 전국 최초 컨택센터 지원 조례 제정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컨택센터 유치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인천지역에 컨택센터 육성 및 본격적 컨택센터 유치를 위해 발의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컨택센터(Contact Center)란 전문상담원이 전화·e메일·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IT매개체를 활용해 기업의 고객만족도 향상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미래형 지식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컨택센터 투자유치단 운영에 관한사항,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에 관한사항,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 관리 사항 등이다. 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9억원, 세부적인 시설보조금은 최대 3억원, 건물 임차료 최대 3억원, 고용보조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 시 투자유치담당관실 ☎440-3302



### 송도 전천후 동계 스포츠파크 조성 MOU

송도에 실내 스키장과 아이스링크, 호텔 등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동계스포츠파크가 들어선다. 우리시는 지난 달 22일 ㈜포시즌월드와 인천시청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 LNG 지구 내 '송도 사계절 동계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시즌월드는 4천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LNG기지 18만㎡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스키장, 아이스링크, 컬링 경기장, 호텔, 쇼핑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도 사계절 동계스포츠파크는 송도LNG기지에서 발생하는 냉각열을 이용해 사계절 내내 동계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동계스포츠 전문 테마파크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440-4076

### 인천어린이과학관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최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2013년 하반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돼 '교육기부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교육기부인증(마크)제란 정부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화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공공기관, 대학 등을 발굴하여 교육기부인증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인천어린이과학관은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개관 이래 3년간 다양한 교육기부활동을 지속해 왔다. 올해도 가족천체관측교실, 과학자와의 만남, 연구사와 떠나는 과학여행 등 5종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200여 회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인천시 서부교육청과 공동으로 주말과학체험 한마당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교육기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문의 : 어린이과학관 ☎550-3334

### 세어도 급수문제 올 7월까지 해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서구 세어도 급수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7월까지 시설개량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여름철 성수기 이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어도는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에서 강화 초지대교 방향의 해안도로 좌측에 보이는 곳으로 약 40만㎡이며, 26가구에 37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다.

현재 세어도 주민들은 섬 중앙에 있는 저수지 물을 끌어다려 빨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수는 마을회관에 있는 지하수 관정에서 물을 길어다 먹을 정도로 식수 시설이 낙후돼 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섬의 규모가 작아 매년 식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지하수 전문 공기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하수 이용방안으로 결론을 내렸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720-2183

### 인천경제청 시티타워 건립·개발 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원화로 추진해 온 청라국제도시 내 '시티타워 및 타워 부속시설인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통합해 일괄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리해 추진해 온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개발방식을 전면 재조정해 LH로부터 시티타워 공모권한 등을 이전받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인천경제청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에 건설되는 시티타워 일대 복합용지 3만3천58㎡를 복합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를 지난 달 10일 마감했으나, 사업신청을 낸 기업은 없다. 이번 복합시설 공모가 실패함에 따라 경제청은 통합공모와 함께 시티타워 사업비는 LH가 기성금으로 지불하고, 복합시설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조달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른 시일내 청라국제도시 주민설 명회를 열고, 향후 LH와 통합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22

## 의정뉴스

### 제115회 학생 의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의회는 학생들에게 토론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시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이해시키고, 시의원의 직업체험도 해볼 수 있는 '2014년도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달 9일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제115회 학생 모의의회 프로그램에는 중구 동인천동 소재 인일여자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33명이 참여했다.

인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실제 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상임위 및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를 하고,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 조례를 확정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 전통공원 습지원 조성사업 현장 점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달 7일 서부공원사업소를 방문하여 월미공원 관광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전통공원 습지원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방문단은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한식체험관 운영, 습지원 조성, 꽃사슴 자연농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의회에서도 월미공원이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성만 의장은 직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중구, 동구, 서구 등 서부를 축으로 한 발전계획이 많은 만큼 공원시설 등 시민 휴식공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부공원사업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발표회 열어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 19일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연구활동을 펼친 총 5개 의원연구단체가 참여했으며,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 대표 의원인 박승희 의원을 비롯하여 녹색거버넌스연구모임, 사회책임조달연구회, 시민생활밀착사업연구포럼, 협동조합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은 인천시 집행부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에 추진해온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난 8년여 동안 연구단체 구성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 활동비 증액, 구성요건 완화 등으로 의원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Council News



### 태국 방콕시의회 대표단 방문

태국 방콕시의회 대표단이 지난달 7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를 우호 방문했다.

이성만 의장은 방콕시의회 대표단에게 양도시 의회간의 지속적인 상호 우호교류 및 방콕시민들이 40억 아시아의 축제인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 인천을 많이 찾아오고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대표단은 의회 방문에 이어 김교흥 인천광역시청 정무부시장을 만나 양 도시간 문화 교류 협력과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관련 민원청취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일 인천 소기업·소상공인협회 회장, 인천상인연합회 회장,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등 관련단체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데 인천시 법무담당관, 사회적경제과장, 생활경제과 소상공지원 팀장이 배석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관련 민원청취'를 했다.

이번 회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하여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치법규의 조항들이 폐지될 우려가 있어 시 관련부서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병 시의원은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의 약자를 보호하는 영역별 관련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조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개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규제개혁 차원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천도서 목록			
서 명	저언이	출판사	책 소개
필링의 인문학	유범상	논형	이상한 놈, 필링의 인문학을 만나다!
어떻게 배울 것인가	존 맥스웰	비즈니스북스	존 맥스웰 기적의 성장 프로젝트 그 두 번째!
가난한 싱글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지영	토네이도	노후가 불안한 싱글을 위한 경제 지침서
오늘, 내게 인생을 묻다	강북삼성병원,심성스포츠탄	서울문화사	흔들리는 직장인을 위한 현명한 스트레스 대처법!
친절한 과학책	이동환	꿈결	과학에서 찾은 일상의 기원
질병의 탄생	홍윤철	사이	질병의 출현과 예방에 대한 문명사적 고찰!
결국 엄마가 되고 말았다	김은미	예담	늦깎이 엄마의 유쾌한 육아 수다
사라진 그림들의 인터뷰	조슈아 넬먼	시공아트	미술품 도둑과 경찰, 아트 딜러들의 리얼 스토리
겨울일기	폴 오스터	열린책들	육십여 년의 삶에 담긴 구체적이고 강렬한 기억!
지금, 여기, 하나뿐인 당신에게	심영섭	페이퍼스토리	영화심리학자 심영섭의 마음 에세이
그들은 어떻게 시대를 넘어 전설이 되었나	이희진, 은예린	아름다운날	자신과 역사의 운명을 가른 12가지 선택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설민석	휴먼큐브	테마로 완성하는 살아 있는 역사 이야기!!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6

##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시인

## 나혁채



1948년 인천 출생

1972년 동국대 국어국문학 졸업

1982년 현대문학을 통해 문단 데뷔,

현대문학 신인상

주요작품

시 '하늘나라 들르는 길목을 돌아'(1980), '죽음 앞에 선 장엄한 준비'(1982), '10월의 손'(1983), '책 덮고 누울 자리는, 물소리 연가'(1985), '산의 말씀'(1987) 등

## 인천골목

e-book으로

만나다



인천 골목은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깊게 패인 도시의 잔주름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것처럼 도시의 모습도 바뀐다. 한 도시가 어떤 주름살과 어떤 피부, 어떤 눈빛을 갖게 되는가는 전적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도시의 모습은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닮기 때문이다. 인천 골목만큼 다양한 표정을 지닌 도시도 드물다.

인천시는 2013년 12월말 ‘골목, 살아(사라)지다’를 발간했다. 수문통에서 백마장까지 인천골목이 품은 이야기와 표정을 400페이지 분량에 수록했다. 최근 더 많은 분들이 ‘골목, 살아(사라)지다’를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자를 e-book으로 제작했다.

## e-book 버전 보기

- 인천도서관협회 회원가입 후 → 스마트도서관 → 전자책코너 → 검색 → 대출
- 모바일  
‘책읽는 도시인천’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아이폰) → 로그인 → 대출  
‘인천시 미디어’ 앱 다운로드 → 홍보책자 → ‘골목 살아지다’ 책자 다운로드 → 보기
-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홈페이지 → 상단 행정 메뉴 클릭 → 행정정보 → 행정간행물 → ‘골목’으로 검색



## 사라진 그림들의 인터뷰

조슈아 넬먼 | 시공아트 | 2014

미술품 도난 세계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밀접한 인터뷰를 통해 저자는 심각해져 가는 미술품 절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미술품은 하나의 값비싼 명품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며 이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 가난한 싱글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지영 | 토네이도 | 2014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싱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돈 관리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저자는 ‘보험이나 개인연금에 10만 원 이상 투자하지 마라’, ‘부모님에게 절대 돈 말하지 마라’등 싱글들을 위한 돈 관리 노하우를 소개한다.

## 어떻게 배울 것인가

존 맥스웰 | 비즈니스북스 | 2014

어지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중심을 갖추고 한 단계씩 성장해나갈 때 비로소 올바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저자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살면서 필요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질병의 탄생

홍윤철 | 사이 | 2014

인류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가 얽혀져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질병의 발생을 보아야 함에 집중하여 인류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질병에 대해 생각해 본 책이다. 질병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하며 마지막 장에 질병 예방 전략 세 가지를 수록하였다.



### 5월 가정의 달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남동문화예술회관은 5월 가정의 달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최병관 사진전 ‘어머니의 실크로드’

최병관 작가의 ‘어머니의 실크로드’ 사진전은 추억 속 고향 마을의 풍경과 함께 사라져가는 소중한 것들에 바치는 포토 에세이다. 6개의 소주제로 추억 속의 소래포구와 고향마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되살려냈다.



전시기간 : 5월 1일~31일, 월요일 휴무 ※ 5월 5일(월) 어린이날 관람 가능

관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전시장소 :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관람료 : 무료(단체관람 예약필수)

문의 : 453-5710

#### ‘소래, 바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남동문화예술회관의 새 이름 선정을 기념하여 국민가수 조영남, 재즈가수 웅산밴드 등이 출연하는 공연무대다.

일시 : 5월 10일(토) 17:00

장소 :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관람료 : 1천원

출연진 : 가수 조영남, 웅산밴드, 정정아

MC 임백천, 특별출연 박정자(홍보대사)

예매 : 인터파크(www.interpark.com 1544-1555)

문의 : 453-5710

###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 기념 행사

2014년 제9회 입양의 날(5월 11일) 및 입양주간(5월 11일~17일)을 맞이하여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제9회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국내입양 사진전

일시 : 5월 5일(월) 11:00~16:00

장소 : 문학경기장 동문광장 일원

내용 : 국내입양가족 사진전, 입양홍보물 리플릿 배포 등

#### 입양의 날 기념식 및 국내입양활성화 토론회

일시 : 5월 9일(금) 14:00~17:00

장소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대강당

내용 : 기념식, 입양 유공자 표창, 국내 입양활성화 토론회 등

참석인원 : 300명(초청인사, 입양가족, 입양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문의 : 424-0145

###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조업 영위 소규모 기업에 대해 2천억원 규모(전국)의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에 들어갔다.

#### 지원대상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있는 기업, 심사기준일 현재 국제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보증한도는

기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동일 기업당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 대출금은 100% 전액보증을 통한 금리인하와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해야 함.

문의 : 1577-3790

###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서비스 안내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래관계, 진로, 학업, 가정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집기간 : 연중

대상자 : 9세~24세 청소년 및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지원방법 및 내용 : 개인상담, 심리검사, 전화상담

개인상담(찾아오는 상담, 찾아가는 상담)

대상 : 대상 청소년 및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취약계층 대상 청소년

진행 : 상담신청→상담자 배정→주 1회 50분

비용 : 청소년 무료

심리검사(개인 및 집단심리검사)

대상 : 대상 청소년

종류 : 성격, 진로, 학습, 지능, 기타 검사

집단심리검사 :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실시(성격유형검사, 진로 탐색검사, 학습전략검사)

비용 : 소정의 검사비 발생(검사별 상이, 차상위계층 이하 무료)

#### 전화상담

내용 : 학습, 진로, 교우, 학교폭력, 가출문제 등

일시 : 연중 24시간 운영

신청방법 : 032) 1388(연중 24시간)

문의 : 721-2300, www.inyouth.or.kr



### 컴팩스마트시티

컴팩스마트시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전시행사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 도:시 사이전

각자의 음(7음계 도레미파솔라시)들이 만든 하모니, 멜로디,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 city’를 주제로 한 현대미술작품 전시

일시 : 5월 27일~8월 24일

장소 : 1층, 2층 기획전시실 외

#### 항공위성사진전

인천 도시계획의 변화과정, 즉 개발 전·후 인천의 모습을

살펴보는 전시

일시 : 1월 1일~6월 29일

장소 : 3층 전시관통로 및 계단

#### 인천의 근대 건축 종이모형전

개항기에 현존하던 근대건축물 17점을 종이로 재현하여 당시 서구화된 근대건축 양식을 살펴보는 전시

일시 : 1월 1일~12월 31일

장소 : 1층 고대근대전시관 내

#### 상반기 인천도시건축학교

유치원, 다문화어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건축에 대한 이론수업 및 도시투어, 만들기프로그램 진행

일시 : 5월 24일~6월 21일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4층 교육프로그램강의실 외

신청 : 5월 13일~23일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 : 850-6016

### 울목도서관 ‘가족爰발견’ 행사

울목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爰발견’ 행사를 진행한다. 문의 : 770-3800

행사명	일시 및 장소	내 용	대 상
[실험·체험행사] 우리 아이의 신나는 생활과학교실	5월 13일(화), 27일(화) 오후 4시~5시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와 함께 하는 실험·체험형 생활과학교실 시범운영	초등 1~4
[아빠특강] 우리 아빠의 행복한 노후설계, 재무설계	5월 18일(일), 25일(일) 오후 2시~4시	인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남성대상 노후설계, 재무설계 특별교육	성인남성
[체험행사] 우리가족, 도서관에서 사랑을 만들다!	5월 18일(일), 25일(일) 오후 2시~4시	아빠 교육과 연계된 어린이체험프로그램 가족 소망 ‘등’ 드림캐쳐 만들기 및 영화 상영	유아·초등
[인문학프로그램] 비움+채움: 교양만화의 새로운 발견	5월 22일(목) 오후 7시	‘불편하고 행복하게’의 홍영식 만화가를 초청하여 좌충우돌 도시인의 농촌적응기에 대해 얘기 나누는 시간	온 가족
[가족영화감상] 옥상달빛영화제	5월 29일(목) 오후 7시 (※재공지 예정)	정겨운 봄밤, 가족 대상 애니메이션 ‘라퐁젤’감상	온 가족

## 6월 4일 선거일, 투표로 응원하세요!

- »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해당 투표소(집으로 우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

##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별도 신고없이 5월 30일~31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 » 투표기간 : 5월 30일(금)~3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 » 투표장소 :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편리한 곳
- » 준 비 물 : 신분증(위의 준비물 참조)
- » ※ 「사전투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하여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중앙선거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프로그램 2기 모집

‘어디어디 숨었나?’
부평문화사랑방은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프로그램 2기’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 문화학교는 감각을 깨우고, 맘 속 감정을 꺼내 마음껏 표현해 보는 놀이 프로그램이다.

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선착순 15명
일시 : 5월 31일~8월 9일, 매주 토요일, 09:30~12:30
장소 : 부평문화사랑방(부개1동 주민센터 3층)
참가비 : 무료
참가신청 : 부평문화사랑방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bpcl.or.kr)

출산·장려 보육지원정책, 인천시를 추천해 주세요

정부는 제3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이하여 인구의 날 홍보와 아울러 ‘정부포상 온라인 추천제’를 시행 중에 있다. 이에 인천시는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임신·출산장려·보육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인천시를 추천해 주세요! 출산장려·보육지원정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TV, 인터넷, 포스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추천기관 : 인천광역시(피 추천기관)
추천자 : 인천시민 누구나
내용 : 출산장려제도, 일·가정양립 환경조성, 지역사회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등
※ 결혼·임신·출산·보육지원 등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사이트(momplus.mw.go.kr)에서 확인
추천방법 : 인천시민 ⇒ 웹사이트(스마트폰) 인증 후 온라인 추천 ‘인구의 날’ 홈페이지(www.711.or.kr) ⇒ ‘추천하기’ 클릭
문의 : 440-2753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신청사로 이전해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1981년 청사가 건립된 후로 33년만에 도화구역내 행정타운으로 청사로 이전 새롭게 도약한다.
이전기간 : 5월 9일~11일(본부)
5월 15일~17일(중부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이전장소 : 남구 석정로 225(제물포역 북광장 인근 옛 선화여상 위치)
문의 : 업무부 720-2020, 급수부 720-2120, 시설부 720-2150
수도시설관리소 720-2300, 중부수도사업소 720-3300

정조의 효심, 찾아가는 역사 탐방 함께 떠나요~

연수문화원은 조선시대 수원화성과 행궁을 중심으로 한 유적탐방 교실을 연다.
강사 : 김희주(연수문화원 한국사 강사)
참가비 : 2만5천원(수강생 및 가족), 3만원(비수강생)
단, 연수문화원 회원이 아닐 경우 평생회원 가입비 5천원 별도
일시 : 5월 21일(수) 09:00~16:00
접수기간 : 5월 16일(금)
신청 홈페이지 : call.yeonsu.go.kr

여름학기 문화학교 수강하세요~

연수문화원은 여름학기 문화학교를 열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교육기간 : 6월 2일(월)~8월 23일(토), 3개월
기존회원 동일강좌 신청기간 : 5월 7일(수)까지
기존회원 타강좌 및 신규회원 신청기간 : 5월 8일(목)~선착순 마감
장소 : 연수문화원(연수구청 7층)
신청 홈페이지 : call.yeonsu.go.kr

Table with 2 main columns: 대상 (Target) and 프로그램 (Program). Rows include 유아/어린이/청소년 and 성인 categories with various activities like 레고, 그림책, 전통, 인문, etc.

문의 : 821-6229

‘내가 만든 병, 내가 고친다’
내 몸 자가치유요법을 배워보세요~

주제 :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강사 : 정인교(웰-브레인 평생교육원장)
일시 : 5월 9일(금) 14:00~16:00
장소 : 연수문화원 강좌4실(연수구청 7층)
참가비 : 무료(단, 연수문화원 회원이 아닐 경우 평생회원 가입비 5천원 별도)
집인원 : 25명 선착순 모집
신청 홈페이지 : call.yeonsu.go.kr
문의 : 821-6229, yeonsu.or.kr

제5회 인천관광사진공모전 개최

‘오고 싶은 인천, 즐기고 싶은 인천’을 주 테마로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높은 장면을 작품에 담아 인천시의 모습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자 제5회 인천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
접수기간 : 8월 22일까지
응모자격 : 내·외국인 제한없음
공모분야 : 자연환경/역사와 문화/생활상/발전상등이 담긴 사진
작품수 : 1인 5점 이내
(출품료 없음. 2013년 1월 1일 이후 촬영사진에 한함)
시상내역 : 40점(대상1, 특별상1, 우수상3, 입선35)
문의 : 440-4055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고령화 시대에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인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주택연금?
• 60세 이상 어르신께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부부 모두
• 평생동안 매월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
주택연금 가입 요건
• 주택소유자 기준 60세 이상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수령을 보장
• 가입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주택연금 수령 방식
• 종신수령방식 : 평생거주, 평생수령
• 확정기간방식 : 평생거주, 정해진 기간 동안만 더 많이 수령
• 사전가입방식 : 평생거주,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목돈 수령
주택연금 정산(부부 모두 사망시)
• 집값보다 덜 받은 경우 → 남은 부분 자녀(상속인)에게 상속
• 집값보다 더 받은 경우 →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

문의 : 441-2159, 2172

인천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사진 한 장에 꿈과 희망과 미래를 담다’

한국포토저널협동조합

www.koreaphotojournal.com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지만 확연히 다른 걸 느낍니다. 그 감정을 사진에 담지요.”
한국포토저널협동조합은 국내 포토저널에 종사하는 전직 사진기자, 기업홍보 사진 담당과 기업홍보 사진대행 전문업체로 구성된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집단’으로 다양한 사진관련 업무 대행을 수행한다. 또 국내 최다 촬영장비를 보유하여 숙련되고 풍부한 전문사진 경력을 기반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진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포토저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질적 향상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포토저널 포럼, 창작사진 연구 및 세미나, 사진교육 등 작품을 연구하는 사진작가 모임의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사진에 입문하고자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사진 교육을 실시하는 불레옹공방 포토 스튜디오, 학생들의 사진실습의 장인 사진자원봉사단 등 부설기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에도 봉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인천의제21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진 관련 공동 마케팅으로 차별화된 사진의 전문성을 제공하고 업무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상호 윈-윈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포토저널협동조합의 김노천 이사장은 “사진 전담직원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대형 홍보사진 시장에 소상공인의 협업화로 홍보사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굿모닝인천 태블릿 PC로 보세요



- 굿모닝인천을 온라인·모바일에서 보려면
-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 태블릿 PC에서 '굿모닝인천' 앱 다운로드
  - 인천시 홈페이지 내 '굿모닝인천 웹진(goodmorning.incheon.go.kr)' 클릭
  - 모바일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천시미디어' 앱 다운로드 후 보기

Good Morning  
**ASIA**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미얀마

**49**  
에티켓  
방문 에티켓

**50**  
Asiad News  
키르기스스탄에서 Fun Run~ 외

**52**  
포커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완공

**56**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일본

**58**  
하나되는 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춤추는 소녀 외

**60**  
아시아를 배우다  
언어권별 회화

총 45개국,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한  
민국 경제수도 인천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번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굿모닝인천'이 더 큰 세상을 책에 담았습니다. 글로벌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굿모닝인천'의 글  
로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R e p u b l i c o f t h e U n i o n o f M y a n m a r

순수한 영혼과  
칭룽(세팍타크로)의 나라

## 미얀마

글 · 사진 김성환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지난 2013년 12월 11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44년 만에 동남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서방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미얀마의 ‘커밍아웃 파티’를 전세계에 알렸다. 민주화 개혁과 경제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동남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는 미얀마가 국제사회를 향해 문호를 활짝 열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는 컸다. 특별히 경기를 위해 새로 지어진 3만석 규모의 체육관에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11개 참가국의 선수단, 외교사절, 관중 수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진 동아시아경기대회는 동남아 지역의 최대 체육행사로 지난 1961년과 1969년 이후 미얀마에서 개최하기는 44년만이다.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파워풀한 경기력을 가진 미얀마는 이제 은둔의 나라라는 닉네임 대신 아시아의 또 다른 용으로 부상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순수한 영혼들의 도시 양곤

미얀마의 첫 느낌은 고요하고 정겨웠다. 타지에서 온 여행객을 대하는 미얀마 사람들은 무척이나 친절했고 양곤은 물론 지방의 작은 도시에까지 미얀마를 상징하는 크고 작은 불탑들이 이방인의 시선을 뺏어간다. 특히 미얀마의 아침은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집집마다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 어린 승려에서부터 고승에 이르기까지 찾아오는 모든 승려들에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풍경(탁팻)은 경이로운 것을 넘어 기록하기까지 하다.

2011년 미얀마의 봄 이후 아시아의 떠오르는 용으로 주목받는 미얀마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는 나라여서 도시의 인프라가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척 활기찼으며 외지인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았다. 미얀마 사람들은 아직 순수한 영혼을 간직하고 있었다. 미얀마 최대 도시이자 실질적인 미얀마의 중심도시인 양곤은





지금 넘쳐나는 외국인들로 인해 호텔비는 3~4배 정도 폭등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한다. 갑작스런 개방의 물결에 비해 도시의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지만 현지인들에게는 호재다. 양곤 시내 곳곳에 도로와 호텔 신축이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 아직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더운 날씨인데도 에어컨 없는 버스와 택시들이 즐비한 것만 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은 듯 하다.

어느 나라와 도시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기에는 재래시장이 제일이다. 양곤의 보족 아웅산 마켓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수많은 관광객과 미얀마 사람들로 늘 붐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보석상들이 즐비하다는 점인데 이는 미얀마의 불교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양곤의 상징인 쉐다곤파고다의 외벽에도 많은 금이 칠해졌다고 하고, 필자가 방문했던 많은 사원에도 불상에 금을 입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미얀마 사람들에게 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원들의 이런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도시의 부족한 인프라는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하다. 하지만 그건 이방인들의 시각일 뿐이다.

### 미얀마 따라가기

미얀마의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은 90일이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면 양곤공항에서 즉석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 관광객들은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얀마 내 체류기간은 약 한달(28일) 까지다. 그동안 베트남 항공으로 호치민을 경유하거나, 타이항공으로 방콕을 경유했는데 2012년 9월 대한항공에서 처음으로 양곤으로 직항을 운항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12월 아시아나항공도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다. 미얀마 화폐인 샛은 다른 나라에서는 환전이 안되므로, 달러를 가지고 미얀마에 입국해 양곤 공항 1층의 환전소나 양곤 시내의 은행에서 환전하면 되는데 특이한 점은 반드시 100달러 짜리 뽀뽀한 지폐를 가지고 환전해야 환전율이 높고 수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양곤에서 꼭 들러야 할 곳은 세계최대 불교 사원 중 하나이며 거대한 황금빛 불탑이 인상적인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파고다'와 '보족 아웅산 마켓' 등이 있다.



### 미얀마 화폐에 감춰진 세팍타크로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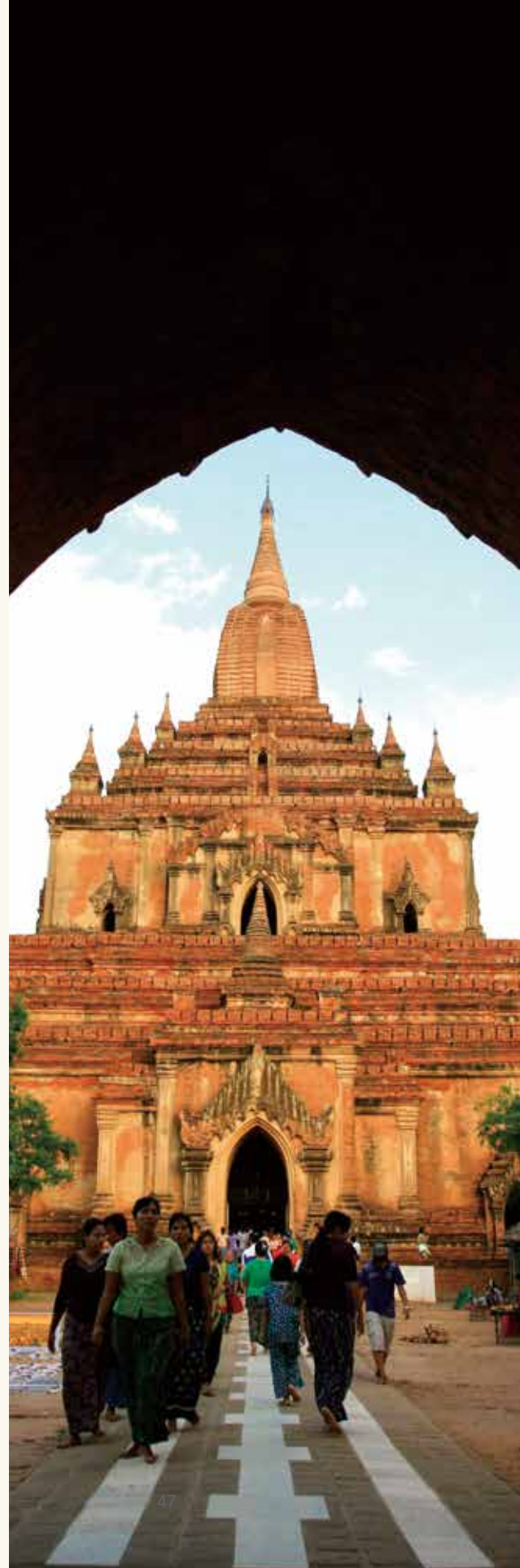
우리는 보통 세팍타크로(Sepak Takraw)의 원조가 태국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얀마에서 청룡으로 불리는 전통 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모른다. 미얀마 지폐에 세팍타크로가 그려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미얀마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미얀마의 화폐 5샛에 미얀마의 전통 구기인 세팍타크로 스타일의 청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다소 혼동스러웠다. "앗 태국이 원조 아닌가?" 하지만 미얀마의 지폐에 청룡 이미지가 삽입될 정도면 청룡이 미얀마 삶에 얼마나 깊숙히 자리 잡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미얀마가 태국의 아성을 깨고 선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들처럼 불편해 하거나, 조급하거나 타인을 경계하는 눈빛 대신 행복한 미소로 사람을 대한다. 그 모습이 마냥 부럽기만 하다.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자원, 넓은 국토 그리고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이 어찌면 이런 여유를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에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미국 및 유럽, 중국, 일본, 태국, 우리나라 등 많은 나라들이 하루빨리 미얀마의 신흥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소중한 종교와 사람에 대한 가치가 변하지 않기를 빌어본다.

### 머물고 싶은 거룩한 도시 바간

미얀마의 중부에 위치한 바간(Bagan)은 3천개가 넘는 크고 작은 파고다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 미얀마를 찾는 여행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중 하나다. 물론 기후가 건조하고 무더워서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겨울은 11월부터 새해 2월까지이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계절에 구분 없이 이곳을 찾는다. 비행기로 양곤에서 1시간 10분 거리에 있는 바간으로 날아가기 위해 국내선을 탔다. 아직은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만 비행기를 이용하고, 미얀마 사람들은 비싸서 비행기를 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재미있는 것은 비행기로 한시간 남짓 거리지만 배로 갈 경우 6일이 걸리고, 버스로는 11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기차도 있는데 이 역시 16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비용은 항공사와 예약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돈으로 약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든다. 현재 바간 지역에는 4개의 왕궁터와 유적지들이 남아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3천122개의 파고다가 흩어져 있다. 수 많은 파고다를 비추며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과 아름다운 일몰풍경을 보기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아침 저녁으로 파고다에 오른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는 자신들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눈을 감고 참선을 한다.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

고요한 파고다의 어느 한 곳에 올라 책 한권을 들고 하루종일 보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정말 그렇게 하는 여행객들을 볼 때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길을 돌린다.





## 그리운 기억 하나 만달레이의 '우베인브릿지'

어느 때인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나무로 된 긴 다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현실에서 그곳에 가게된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수 없다. 바로 만달레이의 우베인브릿지가 그것이다. 대부분 만달레이로 가면 우선은 왕궁을 보지만 필자는 바로 우베인브릿지로 향했다. 그만큼 간절했던 탓이다. 오래전 우베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았다는 이 다리는 나무로 만든 오래된 다리라는 것도 특이하지만 떨어지는 해를 배경으로 비춰지는 아름다운 실루엣으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사람들은 다리위를 직접 걸어보기도 하고 제티(선착장)에 내려가 보트를 타고 다리를 감상하기도 한다. 약 2km 정도 되는 긴 목조다리를 보기위해 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지 나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그 대열에 합류했다. 이윽고 해가 석양으로 떨어지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석양을 향해 고정된다. 탄성과 감탄들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다. 한동안 이어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에 취해 움직일 수가 없다. 혹은 가슴마저 멎게 하는 경이로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수없이 셔터를 누르고 눌러도 그 아름다운 색채의 마술을 앵글에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솟구친다. 미련만 더 쌓이는 듯하다. 그건 미안마에 대한 미련으로 남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아름다운 영혼의 나라에서 나는 나를 또 정확한다.



## 방문예티켓



그림. 유환석







## '아시아를 달리며, 인천 AG홍보' 키르기스스탄에서 Fun Run~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4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키르기스스탄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공동으로 해외 홍보행사인 '펀런(Fun Run)'을 개최했다. 빅토리 파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현지 주요인사와 OCA대표단 등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또 청소년과 일반 시민 8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현지 언론이 현장 취재하는 등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직위는 펀런 캠페인을 대회 개최 전까지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일본 등 약 5개 국가 도시를 추가로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 인천AG 홈페이지, 소통 중심 개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홈페이지(www.incheon2014ag.org)와 모바일 홈페이지(m.incheon2014ag.org)가 지난달 10일 새롭게 단장했다. 새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온라인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대폭 개선했다.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해 웹 취약점에 대한 점검도 했다.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를 메인 화면에 배치해 적극적 소통도 꾀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에 대한 시설 정보 및 위치 안내,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를 위한 숙박·수송·시설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인천AG 주경기장 일대 탄소상쇄숲 조성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저탄소친환경대회로 치르기 위해 서구 연희동 주경기장 일대에 7천800㎡ 규모의 탄소상쇄숲을 조성한다.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주경기장에서 탄소상쇄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열었다. 숲에는 소나무,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등 6천300그루의 나무가 식재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나무를 심고 나무에 이름표와 선수단 응원 메시지를 걸며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국내 최초로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친환경 국제대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 세계언론브리핑(WPB) 개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세계언론브리핑(WPB)'을 개최했다. WPB는 국내외 주요언론을 대상으로 대회 준비현황 및 미디어 지원서비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리고, 언론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사전에 파악한 뒤 최상의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홍보동영상 상영과 함께 준비상황 및 대회규모, 운영방안 등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20일 마감하는 미디어 등록에 대한 안내와 개별 사무실 등 미디어 관련 시설 임차 및 레이트카드에 대한 협의도 별도 진행했다. 행사가 끝난 뒤 국내외 언론인들은 메인프레스센터(MPC), 주경기장, 미디어촌 등을 둘러봤다. 이번 WPB 행사가 대회 준비상황과 경기장 시설을 아시아 각국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SNS로 물범삼남매 탈 인형 '알바생' 모집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공식 블로그(blog.incheon2014.kr)에 '급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스타 마스코트 물범삼남매 탈 인형 알바생을 모집합니다'라는 공지를 페이스북(facebook.com/incheonAG2014)과 트위터(twitter.com/incheonAG2014)에 게시했다. 조직위는 온·오프라인 연계홍보를 위해 물범삼남매 탈 인형 아르바이트를 기획했다. 13일까지 진행된 공고는 1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마스코트 탈 인형 아르바이트는 앞으로도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다.



## 인천대 학생들, 인천 AG 책자 발간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인천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취재한 인천관광 정보를 담은 '대학생이 말하는 인천여행' 그리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책자가 발간됐다. 책자는 인천대 경영대학(지도교수 이기동)에 재학 중인 40명의 학생들이 인천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직접 취재한 여행정보를 글과 사진으로 엮었다. 학생들은 한 달여 동안 인천을 돌며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조직위는 선수촌과 본부호텔 등에 책자를 비치해 대회를 찾는 국가별 선수단 및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 인천 AG 홍보에 국경은 없다

### 한국을 알리는 다국적 기자단 IAG크루

사람에 국경이 없듯이 홍보에도 국경이 없다. 지난해 10월,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는 해외홍보 강화를 위해 공식 영문 블로그(blog.incheon2014ag.com)를 개설해 영문 블로그기자단인 IAG크루의 발대식을 가졌다. 국내외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뉴스뿐만 아니라 인천관광, 한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총 12개국 20명으로 구성된 2기 IAG크루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세계 방방곡곡에 아시아경기대회의 정보를 전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영문 블로그에 게재되는 다양한 주제의 영문 기사를 작성하고 각자의 SNS 계정으로 해외에 홍보하고 있다. 이달 16일까지는 제3기 IAG크루를 모집한다. 이번엔 선발하는 3기는 6월부터 대회 폐막일인 10월 4일까지 활동한다. 지원하려면 영문 블로그(blog.incheon2014ag.com/3rd\_crew)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iagoc@incheon2014ag.org)로 제출하면 된다.



## 로렌스 / 영국 IAG크루

런던에서 기자로 일한 경험을 살려 블로그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로렌스는 계양구 임학동에 살고 있는 인천사람이기도 하다. 2012년 우연히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일을 계기로 스포츠 이벤트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한국, 그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다. IAG크루로서 그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영문블로그에 영국의 스포츠, 선수, 문화를 전하고 있다. 대회 기간동안 모든 경기장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로렌스는 9월 19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개막될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마침내 위용을 드러냈다. 2011년 6월 7일 첫 삼을 뜬 지 3여 년 만이다. 주경기장은 인천의 자원인 파도, 하늘, 춤을 디자인화했다. 경기장은 인천의 랜드마크로, 9월 19일 개막식과 10월 4일 폐회식 및 육상경기는 물론 마라톤 결승지점으로 활용해 역사적 장소가 된다. 주경기장에서 시작하는 화려하고 힘찬 경기는 45억 아시아인들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 아시아 최대 가변석, 대회 후 편익시설로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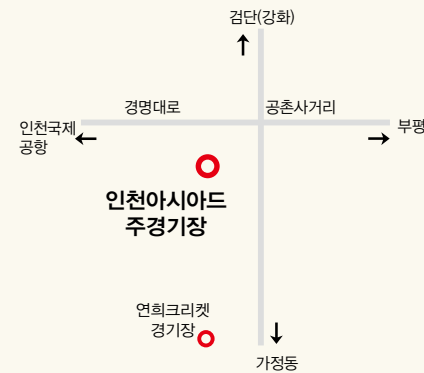
### 개·폐회식, 마라톤 결승지점으로 활용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를 주경기장에서는 개·폐회식의 화려한 퍼레이드, 육상 선수들의 숨소리, 땀방울을 보고 들을 수 있다. 또 동남아시아의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 경기를 신나게 구경할 수 있다. 대회 첫 행사가 열리는 장소인 만큼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 준공식은 5월 7일 가질 예정이다. 3년간 흘린 땀방울이 마침내 결정을 맺는 순간이다. 5층 규모의 경기장 대지면적은 63만1천975㎡, 관람석은 6만2천818석이다. 이중 가변석이 50%를 차지한다. 3만석에 달하는 가변석은 대회가 끝난 후 철거된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주경기장의 가변석은 대회기간만 사용하고 대회 이후에는 철거함으로써 공사비를 절약했다. 대회 이후엔 입체 녹지공간과 편익시설이 들어선다. 경기장 1층 공간도 각종 상업·문화시설이 들어서 수익시설로 활용한다.







### ※ 숫자로 보는 주경기장

 <b>대지면적</b> 631,975㎡	 <b>공사기간</b> 2011.5~2014.4	 <b>총 사업비</b> 4,899억원
 <b>건축면적</b> 74,948㎡	 <b>연면적</b> 113,620㎡	 <b>좌석수</b> 62,818석
 <b>높이</b> 59m	 <b>주차대수</b> 1,901대	 <b>철골</b> 6,378톤
 <b>콘크리트</b> 138,352㎡	 <b>철근</b> 15,999톤	 <b>동원인력</b> 302,849명

경기장은 남북으로 긴 대지의 형태를 띠고 원형 그라운드에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주변 공원과 연결하여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계했다. 지상 1층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선수, VIP, 운영진 등 대회관계자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동선을 짰고, 공간을 독립적으로 확보했다. 서쪽 경기장의 3층은 회원라운지와 연회장, 4층은 VVIP실, 회원실로 조성된다.

일반석은 쾌적한 관람을 위해 넓은 간격, 조망권을 확보하여 각 좌석에서도 경기장이 잘 보이도록 설계에서부터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장애인 관람석 534석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고려하여 회전식 휠체어석과 동반자석을 함께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경기장의 외관은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조형미를 잘 표현하며 외관이 아름다운 PTFE막,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쉬트 등을 사용했다. 경관조명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연출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안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친환경 인증’ 획득한 그린경기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전 세계 45개국을 대표하는 1만3천명의 선수단과 7천여명의 보도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다. 그런만큼 경기장은 21세기의 화두인 ‘환경’을 고려해 설계됐다. 주경기장은 다른 경기장과 달리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인증’을 획득, 그린경기장으로 조성했다. 북측 광장주변은 완충림을 심어, 겨울철 북서풍 찬바람을 차단했으며 주변 녹지와 바닷분수, 캐스케이드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에코캐널은 경기장 주변의 대표적 환경시설로 아시아 경기대회 중에는 대기정화와 복사열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 크리켓 경기장

주경기장 남측에는 또 하나의 경기장이 있다. 크리켓 경기장이다. 국제규격이 지름 150m, 4만1천507㎡ 부지에 연면적 3천㎡의 기능실과 가변석 2천300석의 스탠드를 갖추었다. 크리켓은 야구와 같은 룰을 갖고 있으나 전혀 다른 스포츠로 영국과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이다. 동남아시아쪽에서도 우리의 월드컵 열풍만큼 인기있는 종목이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추가종목으로 결정되었다.

는 에코캐널에 한강원수를 끌어들여 상수도 대비 관리비를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했다.

주경기장은 친환경 경기장 답게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 지열은 주열원으로 냉난방에 사용하고, 태양광은 주경기장의 실내조명으로, 태양열은 급탕시스템에 적용한다. 지붕의 우수는 빗물을 모으는 저장고에 모아 그라운드 조경용수로 재사용 한다. 시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연간 2억원을 절감한다.

### 대회 후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

경기장은 대회가 끝난 후 주경기장의 일부는 대형 영화관, 할인점, 아울렛, 연회장, 뷰티클리닉, 스포츠센터 등의 수익 시설로 활용한다. 동쪽 가변석 3만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도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경기장이라는 공익시설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로 거듭나는 것이다. 또한 야외에는 인근지역 거주자 및 서구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즐길수 있는 콘텐츠를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주경기장의 완공으로 그동안 낙후되어 있는 인천 서구지역은 편의시설과 스포츠 활용 시설이 늘어나 시민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일본

## 황금연휴 5월 이야기

글. 후나타니 유카



가정의 달 5월 일본에는 거의 1주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1948년 국가축일(祝日)법을 시행하면서 도입했으나 당시는 국가경제성장을 위해 축일도 편히 갖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나친 근무조건으로 가족파괴, 과로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휴일의 의미가 중시됐다.

4월 29일 ‘쇼와(昭和)의 날’을 시작으로 5월 3일 ‘헌법기념일’, 4일 ‘미도리(緑)의 날’, 5일 ‘어린이 날’은 국가 축일이고 그 징검다리인 평일 4월 30일, 5월 1, 2일은 개인이 소속하는 일터에서 각자 조절해서 교대로 공평하게 연휴를 보낸다. 원래 꼼꼼함이 넘치는 일본인들이 주변사람들과 가족들의 일정을 고려하면서 두 세 달 앞서 고민해서 얻은 휴일이니 진정한 ‘황금연휴’인 셈이다.

특히, 5월 5일은 단오절로 아이의 건강을 비는 날이다. 5월 5일은 달력상으로는 어린이날로 남자, 여자 아이 모두를 축하하는 날인데, 원래는 단고노셋쿠(端午の節句)라 하여 남자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날이었다. 일본 단옷날의 유래는 쑥이나 창포가 사기(邪気 : 나쁜 기운)를 쫓아 버리는 약초라는 중국풍습이 전해지면서 일터(전쟁터)에 나가는 남자들을 위해 궁궐 여인들 사이에서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변화된 것이 그 시초로 기록에 남아있다.



일본은 아시아의 동북쪽,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전체 면적은 남한 면적의 3.8배이고, 한반도 전체보다 1.7배 넓은 38만km<sup>2</sup>이며, 세계에서 60번째로 넓은 국가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1억2천805만 6천26명으로 세계 10위에 해당한다. 행정구역은 1도(都: 도쿄도(東京都)), 1도(道: 홋카이도(北海道)), 2부(府: 오사카부(大阪府), 교토부(京都府)), 43현(県: 기후현(岐阜県), 나가노현(長野県) 등)의 총 47개로 나뉘어 있으며, 수도는 도쿄다. 종교는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이고, 입헌군주제 국가로, 정부는 내각책임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의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양원제다. 화폐 단위는 엔(円)을 사용하며,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은 5조3909억 달러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그 뒤 본격적으로 무사정권(武士政權)에 들어선 12세기부터는 창포 잎이 칼을 연상하는 것과 남자아이의 출세는 무사가 되는 것이라는 사상 속에서, 여러 전쟁투구를 집안에 장식하거나 신록 아래 바람결에 휘날리는 고이노보리(鯉のぼり)를 세우는 경사스러운 날이 되었다. 이 고이노보리는 종이나 형 겹을 이용하여 잉어 모양을 만들어 채색한 다음 바람에 띄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남자아이의 무탈한 성장과 입신출세를 기원하는 상징이다. 또 창포를 목욕물에 넣은 창포탕에 머리를 감는 습관이 있는데 이 창포는 승부에 강해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지마키(粽 : 찐나 대나무 잎으로 말아서 찐 떡)나 가시와모치(柏餅 : 떡갈나무잎에 찐 팔소의 떡)를 먹으면서 축하하기도 한다.



松下牧場(静岡市) 제공. [www2.tokai.or.jp/asagiri](http://www2.tokai.or.jp/asagiri)





독자가 꾸미는  
하나되는  
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춤추는 소녀

키르기스스탄의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입고 한 소녀가 춤을 춥니다. 그 고운 춤사위를 보며 조금씩 그 나라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심규성 영주시 영주로



소원을 비는 순수한 마음

굿모닝인천 '2014 Great Asia 로드' 대만 편을 읽고 친구들과 타이페이에 다녀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사찰 용산사에서 소원을 비는 대만사람들의 모습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최영주 부평구 부평문화로

활기 가득한 중국의 야시장

중국 대련을 여행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곳은 활기와 인정이 넘치는 야시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나영 서구 여우재로



중국 쿠부치사막 한가운데

중국에서 유학할 때 무려 23시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내몽고 쿠부치사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나래 연수구 원인재로



나는 행복한 남자

스리랑카 한 여촌에서 물고기를 파는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비록 물고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해맑게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장애란 서구 여우재로



안전운전 하세요

필리핀의 한 도로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는 잠깐의 방심과 아차하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며 대한민국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김미혜 시흥시 연성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아시아'를 주제로 한 사진을 받습니다. 아시아 풍경에 대한 단상,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언어권별 회화

# ‘경기장이 어디에 있나요?’

오는 9월 19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면 많은 아시아인들이 자국의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을 찾는다. 경기장은 그야말로 아시아 관광객 및 응원단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영어를 못하는 아시아인들이 낯설은 환경에서 경기장을 못 찾고 헤맬때 자국어로 ‘경기장이 어디에 있나요?’하고 물을 수도 있다. 이때를 대비 아시아 언어로 ‘경기장이 어디에 있나요?’를 배워보자.



영 어

Where is the stadium?

웨어즈 더 스테이디엄?

일본어

競技場(きょうぎじょう)はどこにありますか。

쿄우기쥬우와 도꼬니아리마스까?

베트남어

Sân vận động ở đâu ạ?

선 번 동 어 더우 아.?

몽골어

спортын ордоны хаана байна?

스퍼르팅 어리던 하인 바이닥 베?

러시아어

Где находится стадион?

그제 나호깃짜 스타지온

크메르어

កីឡាដ្ឋាននៅឯណា?

뜨건랭 뿌러곳 너으 건랭나다예?

중국어

比赛场在哪儿? (병음) bǐ sài chǎng zài nǎr?

비싸 창 짜이 날?

마인어

Mana stadium?

마나 스테이디움?

이란어

استادیوم کجاست؟

에스타디움 코저에?

타이어

สนามกีฬาอยู่ที่ไหน?

싸남기라 유티나이?

라오스어

ສະໜາມກລາ ຢື່ໃສ່?

싸남끼라 유싸이?

아랍어

اين الملعب؟

에이나 알말아브?

아, 시야 視野



## 길거리 갤러리의 ‘명작’

세계의 명작들이 뒹뒹하다.  
그곳에서 피카소, 밀레, 샤갈 등 거장들을 만날 수 있다.  
소더비에 나오는 것만 명작이 아니다.  
길거리 갤러리 밖에 걸린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멋지다.

— 베트남 호치민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